

〈WHO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선언〉

팬데믹 쇼크...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약세’



세계 주요 증시 등락률
(미국증시는 11일, 아시아증시는 12일 기준)

코스피 3.9% 폭락...사이드카 발동
환율 13.5원 올라...채권도 약세
뉴욕증시 ‘11년 황소장’ 막내려
닛케이 4.4%·항셱 3.7% 급락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S&P500지수는 이날 4.89% 떨어져 지난달 고점 대비 19% 하락으로 아직 약세장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 증발한 시가총액이 5조 달러(약 6028조 원)에 달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7% 빠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세계적 유행) 선언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새로운 패닉에 빠졌다.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연설에선 정작 시장이 기대했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없었다. 대신 경제에 극악이나 다름없는 ‘이동제한’ 카드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되레 ‘트럼프 쇼크’에 더 요동쳤다. ▶관련기사 3·14면

골드만삭스는 이날 뉴욕증시의 강세장 종말을 선언하면서 올해 중반까지 S&P 500지수가 2450선까지 15%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WHO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공식 선언했다. WHO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팬데믹 판단을 내린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 대유행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WHO는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 2개월 만에 해제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이외에서 감염 속도가 가속화하는 데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각국에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114개국에서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내놓은 코로나19 처방전은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켰다. 트럼프의 연설 후 12일 아시아증시는 쑥대밭이 됐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 원화 가치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일어났다. 또 코스피지수는 1800선 사수가 위태로운 가운데 선물 가격이 5% 이상 빠지면서 한국거래소가 약 8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결국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3.87% 급락한 1834.33으로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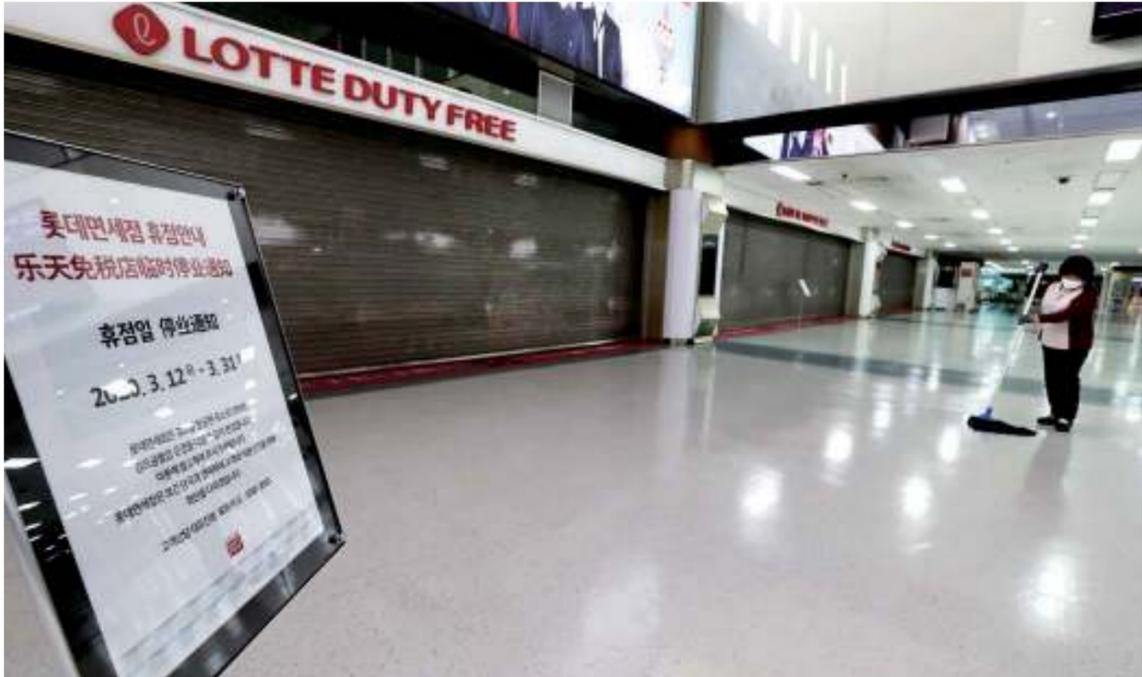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불확실성 속에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11일 뉴욕증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간 지속됐던 최장기 ‘황소장(Bull Market·강세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이날 5.86% 급락해 직전 고점이었던 2월 12일 이후 20.3%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전 고점 대비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3.5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206.5원으로 장을 마쳤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8bp(bp=0.01%포인트) 오른 연 1.387%를 나타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다만 단기 국고채 금리는 내려갔다.

소상공인연 “생활비 지원해달라”
“건물 임차료에 관리비까지 내고 나니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다. 그야말로 아사 직전이다.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최대 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지원, 세제 감면 조치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경기 평택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150만 원이 넘는 하루 매출이 요즘엔 10만 원도 겨우 올라고 있다. 그는 4명의 종업원 중 2명을 그만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4.41% 급락한 1만8559.63으로 2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폭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컸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1.52% 하락한 2923.49로, 홍콩증시 항셱지수는 3.66% 급락한 2만4309.07포인트로 각각 장을 마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코로나19’ 기사 2·3·4·6·8·9·12·13·18면



김포공항 면세점 섣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일본 등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제선 여행객 수가 급감하자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이 12일 임시 휴점에 들어갔다. 롯데면세점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매장 문을 닫은 것은 1980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내 롯데면세점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 국책은행이 지원

수은, 수출기업에 RG발급 검토
TK 中企 3월 이자·보증료 면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나섰다. 방 행장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정 지원 이외의 분야에서도 수출입은행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코로나19 금융지원책으로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기업에 RG를 발급해주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워진 기업에는 상환 유예 및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주고, 역으로 수출이 가능해진 기업에는 RG 발급을 진행하는 등 전폭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RG는 대출과 같은 재정 지원과 달리 발급 과정이

단시간에 이뤄져 지원 효과를 즉각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지원책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은 물건을 제조하기 전 생산을 의뢰한 수입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는다. 만약 수출기업이 주문서에 따라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에 대한 보증을 선 은행이 수입자에게 대신 선수금을 상환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이 수출기업의 보증을 서고 관련 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RG다.

RG는 주로 선박 수주 시 쓰이는 방법이다. 조선업계의 선박 발주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선박 제작을 의뢰한 선주에게 미리 납부한 선수금을 대신 물어줄 것을 약속하는 보증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기업이 RG를 발급받게 되면, 외국 수입업자들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선수금을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제품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RG는 보증을 서는 은행의 신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RG는 수출할 때 큰 경쟁력이 된다.

수출입은행은 RG 발급 외에도 대구·경북지역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대구·경북지역의 중견·중소기업은 3월 한 달 동안 이자 및 보증료를 면제받는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6개월 내에 상황이 도래하는 2조70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6개월 연장된다. 이외에 기업이 수입선을 다변화해 중국 외 타 국가에서 필요 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신규 운영자금 1조 원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은 각자 기업 특성에 따라 물건 생산을 위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거래선 탐색이 가장 급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정부,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

15일부터...2주간 자가진단서 내야
트럼프, 한국 여행제한 완화 시사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가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 미국도 유럽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과 경보를 완화할 방침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다. 앞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국가는 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5개국으로 이번 조치로 대상 국가는 모두 10개국에 됐다. 확대된 특별입국절차는 15일 0시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럽 출발 후 14일 이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도 유럽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 30일 동안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취한 것과 같은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럽이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코로나19 집단 발병지의 씨앗이 유럽을 다녀온 여행객들로부터 뿌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여행제한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진 않고 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변호선 기자 hsbun@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또봉이통닭
본사·가맹점주 헌혈 참여

파리바게뜨 대구·경북 가맹점주
병원·보건소 샌드위치 기부

GS25
경영주 위한 특별 추가예산

롯데지알에스
200억 상생펀드로 저리 대출

“어려울수록 상생” 프랜차이즈 ‘나눔’ 릴레이

프랜차이즈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맹점주에 대한 물질적 지원 외에도 헌혈과 기부, 배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의 협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프랜차이즈가 ‘상생’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또봉이통닭은 본사 전 직원 및 전국 550여 개 가맹점주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10일 각 지역 혈액원을 방문해 헌혈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또봉이통닭 관계자는 “본사 임직원과 전국 가맹점 대표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헌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대구·경북 지역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샌드위치와 우유를 기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 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160명은 대구 의료원, 동산병원과 8개 보건소(북구·달서구 등) 의료진에게 샌드위치와 우유 각 1200여 개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기부



롯데지알에스는 12일 IBK기업은행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의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는 200억 원대 상생펀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서정학(왼쪽부터) IBK기업은행 그룹장과 남익우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김현숙 롯데지알에스 가맹점 대표 점주가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롯데지알에스

활동은 현지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선별 진료소 인근 본아이에프 ‘본죽’ 및 ‘본죽&비빔밥 카페’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 진압에 힘쓰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약 1800그릇의 죽을 기부한다.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기 어려운 의료진을 위해 가맹점주들은 2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 선별 진료소 21곳에 본죽 ‘전복죽’과 ‘쇠고기야채죽’을 직접 배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은 가맹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16일부터 전국 경영주를 위한 특별 추가예산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GS25는 “추가 긴급지원을 기획한 것은 경영주협의회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특별 지원대책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S25는 점포운영지원·금융지원·영업 활성화 지원·피해지원을 골자로 경영주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월 20억 원 규모의 특별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GS25는 구체적으로 △신선식품 폐기지원금 추가 30% 확대 △정산금 50% 최대 12일 조기지급 △상생대출금 0.7% 우대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지알에스는 IBK기업은행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롯데지알에스는 기업은행에 100억 원을 무이자 예약하고, 기업은행은 저리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 2017년 우리은행과 가맹점 동반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상생펀드를 조성한 것을 포함하면 상생펀드 규모는 200억 원에 달한다.

또, 롯데지알에스는 롯데리아 매장에 위생 용품과 방역 비용 등을 제공하고 엔제리너스 로열티를 100% 면제해 가맹점 부담을 줄인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대학가, SNS 타고 ‘기부 행렬’

경희대 시작으로 서울대·한양대·중유학생도 힘 보태

대학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은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각 대학 재학생을 주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기부금 모금 소식이 속속 퍼져나가자 기부 금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들 자발적 기부 줄이어 =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양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전날 기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2229만 원을 모았다. 1일 학생 4명이 시작한 이번 모금은 이튿날 566명까지 늘

어 1080여만 원이 적립될 만큼 호응을 얻었다. 한양대 관계자는 “이 중 200만 원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고, 나머지 금액의 기부처는 참여자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등 코로나19 의료 현장에 마스크나 방호복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병원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사서 기부하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대 학생 1035명은 3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4171만 원을 모금해 포항의료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안동의료원, 대구의료원 등에 방호복 2075벌과 장갑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대인 모금’으로 구매한 방호복. 사진제공 서울대 손수승 씨

만 7000개, 손 소독제 100통을 보냈다.

물품 기부를 제안한 손수승(식품생산과 학부) 씨는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기부하려고 기부처를 찾다가 우리 학교 학생들

에게 함께 모금할 것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예상보다 반응이 긍정적이었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 처음 코로나19 극복 모금 활동을 시작해 기부 움직임을 이끈 대학은 경희대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누적 기부액 4400만 원을 넘겼다.

경희대 모금을 주도한 박민희(국문과) 씨는 “1만~3만 원 기부가 가장 많았고 교수님 이름으로 120만 원도 입금됐다”면서 “기부 대상 기관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 외에도 고려대, 건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의 학생들이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조건 없이 동참했다.

◇중국인 유학생들도 기부행렬 동참 =

중국인 유학생들도 우리나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행렬에 합류했다. 최근 격리해제된 삼육대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구 어린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했다.

이들 학생은 중국에 마스크를 보낼 예정이었지만,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구에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학교 측의 세심한 보호 조치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학교에 교내 방역사업 지원금 271만 원을 전달했다.

단국대의 중국인 유학생들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구 시민을 위해 성금 230만 원을 모았다. 국내 재학 중국인 유학생들의 기부로는 첫 사례다. 김수복 단국대 총장이 100만 원을 더하면서 이들은 총 33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사에 전달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장애라는 무거운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일터, 편견과 차별을 버리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 1588-1519 www.kead.or.kr

수요 감소·교역 제한·투자 위축... '퍼펙트 스톰' 덮치나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세계적 유행) 선언으로 글로벌 경제가 미지의 영역에 들어 서게 됐다.

팬데믹 선언에 맞춰 세계 각국이 대내외 적으로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경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교역제한과 수요 감소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지면 글로벌 경제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은 코로나19가 최악의 팬데믹 중 하나였던 1918년 스페인 독감 수준의 피해를 안길 경우에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9조 달러(약 1경 80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세계 GDP를 88조 달러로 추정했을 때 10%가량의 GDP가 줄어드는 셈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대국민 연설에서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

세계 각국 코로나19 주요 봉쇄 조치

※ 출처: 블룸버그·한국 외교부

미국

- 13일부터 30일간 영국 제의 유럽발 입국 금지
- 한국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과 경보 재평가 가능성
- 각 주 정부, 대규모 집회 금지
- 스포츠 경기 무관중 방청, NBA는 시즌 중단
- CME, 13일 장 마감 후 시카고 트레이딩 플로어 잠정 폐쇄

이탈리아

- 전국 대상 이동제한령
- 약국과 식료품점 제외한 전 상거래 장소 폐쇄

인도

- 4월 15일까지 관광·비즈니스·학생 비자 효력 정지
- 사실상 한 달간 외국인 입국 금지

태국

-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19개국과 지역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 한국, 이탈리아, 홍콩에는 비자면제 조치 취소

대한민국

- 12일 오전 10시 기준 전 세계 123개국 입국 금지 또는 제한

WHO '팬데믹' 선언에 각국 대내외적 봉쇄 조치 강화 감염 억제 정책에 따른 '경제 붕괴' 수준 핵심 이슈로 주요 연구기관 '최악의 경우 세계 GDP 9% 달러 감소'

대해 13일 자정부터 30일간 미국으로의 여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럽에 대해 한 달간 전면 입국 금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내놓은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은 미국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

국처럼 감염자가 많은 나라에서의 여행 제한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미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집단 감염 대부분이 유럽에서 온 여행자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는 유럽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도 발령해 미국인이 해당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권고했다.

유럽의 코로나19 핫스팟이 된 이탈리아

는 갈수록 봉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9일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사실상의 '국토 봉쇄'에 나선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날 아예 약국과 식료품점 등 기본 생필품 관련 매장을 제외한 모든 상거래 장소에 대해 25일까지 폐쇄를 지시했다.

인도는 13일 정오를 기해 다음 달 15일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광과 상용 비자, 학생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강수를 뒀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사실상 여행을 전면 제한하고 행사도 대부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물론 기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CNBC는 "시장은 이런 조치들이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에서 이런 것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 정도로 바이러스가 더 창궐할 것으로 판단하면 공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초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9%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성장률이 높아야 2%대 중반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벤 메이 글로벌 거시경제 리서치 대표는 "경제적 관점에서 코로나19 환자 수는 물론 감염 억제정책에 따른 '경제 붕괴' 수준도 핵심 이슈가 된다"며 "중국이 취했던 것과 같은 전면적인 봉쇄가 불균형적으로 취해지면 공포를 더욱 불러일으켜 글로벌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주기 비용만 하루 수천만원인데 공항사용료 납부 유예가 될 소용"

LCC 10대 중 9대가 운항 중지
임차 운용 국적사도 비용 부담
"항공기 재산세 등 세금 감면...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나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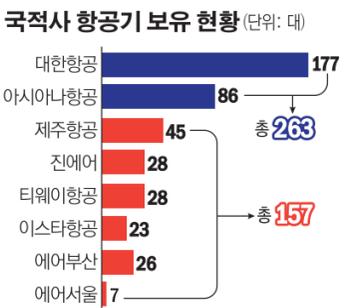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행기를 세워둘 곳이 없는 이른바 '주기 대란'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앞은 자리에서 쌓여만 가는 주기는 항공사의 목을 죄고 있다. 10대 중 9대꼴로 비행기가 멈춰버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감당해야 하는 주기는 하루에만 수천만 원에 달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국가가 119곳으로 늘어나면서 LCC 6곳의 비행기들이 90% 이상 멈춰섰다.

최근 일본 하늘길까지 막히며 사실상 100% 가까이 비행기 운항을 중단한 LCC들은 텅빈 비행기를 국내 노선에 몇 차례 띄우고 있을 뿐이다.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들이 보유한 항공기는 총 157대로 이 중 140~145대가량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셈이다. 갈 곳 잃은 비행기들은 세워둘 곳이 없거나, 주기공간을 확보했어도 얼마아마한 주기로에 또 한 번 몸살을 앓고 있다.

LCC 대부분이 소형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 기준 멈춰선 140대가 하루종일 주기하고 치러야 할 대가는 5000만 원에 육박한다.

인천공항은 1·2여객터미널에 항공기 163대를 세워놓을 수 있는 주기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미 포화상태다. 별도로 운영되는 다목적 공간을 주기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모자라 제2화물터미널 인근의 D5 유도로까지 주기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주기가 인천국제공항의 3분의 1 수준인 지방공항 역시 사정이 좋지 않다. 김포국제공항 주기장(89대)은 이미 꽉 찼으며, 그 외 지방공항 중에는 제대로 주기장을 갖추지 못한 곳들도 많아 일반 항공기들이 오랜 기간 정류하기가 쉽지 않다.

비행기를 세워둘 경우 드는 비용이 주기가가 다가 아니다. 대부분 비행기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국적사들은 띄우지도 못하는 비행기에 대해서도 임차료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LCC를 비롯한 항공업계는 "항공기 재산세와 항공유 수입 관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하루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주기로도 당장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등을 포함한 긴급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유예보단 감면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답변을 여전히 주지 못하고 있으며, 업계의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만 했지만,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아직까지도 없다"면서 "항공사들이 정부에 제안한 여러 정책들이 빨리 시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국민, 좋아요♡
보험, 좋아요♡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바쁘게 챙겨드립니다!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소중한 내 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예금잔액(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탁된 금액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장내용을 제외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밀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장과 있는 다음 중 어느 한가의 경우에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며 지급할 때는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을 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산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산 경우 *보장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계약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업의 심의번호 제18649호(2019.07.08) *주식사설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업의 심의번호 제2019-02195호(2019-07-09) *주식사설서 명동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생명빌딩 www.kbl.co.kr *고객콜센터:1588-9922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방역 '시간과의 싸움'... 조기 변곡점 없으면 '회복 불능'

구로 콜센터 '슈퍼 전파' 가능성... 수도권·충청 등 전국 확산 장기화 땀 경제·사회 부정적 영향 누적... 개학 일정 미지수 기업 10곳 중 4곳 문 닫아... "신용도 하락 땀 외환위기 재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명대로 줄었으나 산발적으로 집단발생이 이어지면서 사업체 10곳 중 6곳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자칫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경제·사회 전반이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우려가 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날 0시보다 114명 늘어난 78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때 700명을 웃돌았던 대구·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100명 미만으로 줄었다.

반면 서울에선 확진자가 212명으로 하루 새 19명 늘었다. 경기(178명)도 200명에 육박한다. 수도권에선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0시(방대본 집계) 이후 추가된 3명을 제외한 99명 중 19명은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로 2차 이상 감염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콜센터 사태에 대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선 자칫 '슈퍼 전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조직이 있는 355개 사업장 중 124곳(35.1%)이 조업단축·중단, 작업장 전면폐쇄 등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79곳(22.4%)은 앞으로 영향이 있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초·중·고교 및 대학 개학 연기, 공연·행사 연기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시간과의 싸움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사태가 장기화해 부정적 영향이 누적될수록 회복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보전해줄 수 있겠지만, 기업들은 신용도가 하락하면 자칫 외환위기 같은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추세를 예측하는데 신중한 모습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한·중·일 텔레콘퍼런스에서 중국 질병관리기구 수장은 우한시의 경우 두 달 가까이 완전히 집에 격리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부분을 언제쯤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지는 아직 그쪽에서도 기준이나 정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또 다른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정총리 '구로 집단감염' 점검

정세균(앞줄 가운데) 국무총리가 12일 코로나19 집단감염 현장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의 선별진료소에서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소비심리 뚝뚝... 韓, 소비자신뢰지수 낙폭 OECD 1위

2월 지수 0.4P 하락한 99.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기구에서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2월 소비자신뢰지수(CCI)를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달 전(100.0)보다 0.4포인트 하락한 99.6으로 자료 집계가 완료된 OECD 회원국 25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의 소비자동향지수를 비롯해 각국에서 내는 신뢰지수를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게끔 바로잡은 소비자신뢰지수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 다음으로 소비자신뢰지수가 많이 떨어진 곳은 터키(95.2→94.9)였고 일본(99.0→98.9)은 0.1포인트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5개국 가운데 20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지수 수준이 더 낮은 곳은 호주(99.4), 스웨덴(99.2), 일본(98.9), 핀란드(98.7), 터키(94.9) 순이었다.

OECD는 회원국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비회원국이지만 경제 규모가 큰 6개 신흥국의 소비자신뢰지수를 집계해 발표하는데 중국 지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유로존은 2월 초 조사가 이뤄져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소비심리가 더 빨리 얼어붙은 것은 코로나19 발생지인 중국과 인접한 데

다 1월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도 이달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7.3포인트 하락한 96.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치는 코로나19가 심각해지기 전의 수치라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10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발표한 3월 소비자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최근의 환경적 상황을 이유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부딪친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면 마스크 써라” 3일 만에... 세종청사 확진자 잇따라 발생

해수부서만 17명 등 23명 '양성' 해당 부서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 대면회의 금지... 업무 공백 우려

해양수산부 중심 업무처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 업무 공백과 함께 공식사회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 정부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세종시 발표(오후 6시) 기준으로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해수부 공무원 17명, 국가보훈처 2명,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 각각 1명 등 총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해수부 전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어 향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청사 내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무가 마비되는 사실상 '셋다운'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현장에 나가라고 지시했지만, 오히려 재택근무가 늘고 있는 셈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0일 해수부 사무실 등을 소독했다. 해수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등이 이용하는 구내식당(5동)은 11일부터 무기한 폐쇄됐다. 앞서 3일에는 세종청사 17개 동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차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나온 수산실과 물류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자택에 격리 중"이라며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은 출근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대면 회의를 금지하고 실국장 회의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다. 자택에 격리 중인 직원들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종청사 직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해수부의 경우 총 17명의 확진자가 나와 정부 부처가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9번 확진자인 해수부 직원(50대 남성)이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주요 감염 경로인 춤바댄스 학원·대구·중국·신천지 등과 무관하고 확진자들과 가족 관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앞서 공식사회가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공교롭게 면 마스크 사용을 권고한 이후 3일 만에 청사 내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의 권고에도 대부분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다. 최근 회의에서 차관급 공무원도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나오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면 마스크를 쓰라고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한국 입국제한 123곳으로... 47개국은 전면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으로까지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방문객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은 12일 오전 123곳으로 집계됐다.

12일 오전 10시 기준 외교부 집계를 보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23곳이다. 전날보다 4곳이 늘었고 과테말라, 헝가리, 체코, 니제르가 추가됐다.

한국에서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국가는 모두 47곳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 입국 14일 전, 혹은 전면적으로 한국 방문객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 방역이 취약한 부탄과 사모아, 미크로네시아 등도 빗장을 걸어 잠갔다. △유럽에서는 헝가리와 터키, 카자흐스탄이 △중동에서는 사우디아와 이스라엘, 요르단, 카타르 등 대부분 국가가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몰디브와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국은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 방문

코로나19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			
(12일 오전 10시 기준 123곳)			
입국금지: 53개국(한국전역 47·일부지역 6)			
입국절차 강화: 70개 국/지역			
아시아·태평양	중동	유럽	아프리카
한국전역 나우루 마셜제도 미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비누아투 부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국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일부지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몬테네그로 터키 헝가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주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아이티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			

※출처: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한 경우 입국을 금지했다.

18개 국가에서는 한국발 내·외국인을 14일 동안 호텔이나 시설 등에 격리한다. 중국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인을 격리하지 않고 있지만, 21곳의 각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한국인과 한국 방문객을 격리 중이다. 마카오와 베트남, 루마니아 등도 한국 방문 이력이 있으면 호텔, 자가 격리한다.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자가 격리를 요구하는 곳도 늘고 있다. 또 입국 때 발열 검사나 검역 신고서를 요구하는 등 검역

을 강화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례를 모두 합치면 52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현실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11일에는 가나와 동티모르 등 10곳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했고,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 등 확진자가 급증한 곳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도 함께 포함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외교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통합당 황교안·김형오 ‘공천 갈등’ 결국 폭발

전권 쫓던 황, 한국당 출신 컷오프에 입장 바뀌... 김종인 입김도 작용 최고위, 인천 연수를 등 6곳 재심의 요청... 홍준표 대구 무소속 출마

미래통합당의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공천 결과에 제동을 걸면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돌하는 모양새다.

컷오프(공천배제) 인사들의 공관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당 지도부가 나서 황 대표와 김 위원장 간 파워게임을 비화한 셈이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통합당의 ‘공천 잡음’을 지적한 것도 황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유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대표는 12일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해 “당 안팎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심하듯 재의를 요구했다.

통합당은 서울 강남을, 인천 연수를, 대구 달서갑, 부산 북·강서을과 진구갑, 경남 거제 등 6곳의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대부분 현역 의원이 컷오프된 곳이다.

황 대표는 그동안 공관위의 결정에 “자율성을 쥐어 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전권



을 맡겼다. 그러나 그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데는 옛 자유한국당 출신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친황(친황교안) 인사들이나 한국당 출신보다 안철수계나 유승민계 통합 인사들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던 것이다.

인천 연수을은 민경욱 의원이 컷오프되고 유승민계인 민현주 전 의원이 나섰다. 부산 북·강서을도 미래통합당전진4.0(전진당) 출신 김원성 최고위원이 단수추천됐고, 대구 달서갑도 박대훈 의원이 컷오프되고 이두아 전 의원이 단수추천을 받았다. 홍준표(사진) 전 한국당 대표는 원했던 양산을에서 배제된 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통합당 현역이 없는 대구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김종인 전 대표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김 전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황 대표가 제안한 당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김형오 공관위의 공천 수정’을 전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자, 황 대표가 직접 재의 요구에 나섰다 분석이다. 실제로 김 전 대표는 최근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사천(私薦·개인적 친분이나 감정에 따른 공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천 인사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황 대표의 뜻대로 재의가 순탄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관위가 내린 공천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최고위이지만 공관위가 재의 후에 같은 안을 ‘재의결’ 하면 최고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 공관위 대표로 참석한 이석연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의 재의 요구가 있으면 공관위는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논의하겠다”며 “제나 다른 공관위원들이 ‘사천’을 용납하겠나. 특정 보도에 대해 일일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유권자가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작년 로또 판매액 4.3조 역대 최고

1등 당첨금 최대 48.7억 일평균 118억원어치 팔려

876회(9월 14일 추첨) 1등 당첨자는 19명이나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액이 10억90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나해 로또복권이 4조3000억 원 상당이 팔리면서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1등 당첨금 최대는 49억 원, 최소는 11억 원이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액은 4조3181억 원으로 전년(3조9687억 원)보다 8.8% 증가했다. 로또 판매가 4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2번의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된 이들은 507명이었고 이들의 당첨금 합계는 1조420억 원에 달했다. 861회(6월 1일 추첨) 당첨자 4명은 각각 48억7000만 원을 받은 반면

기재부의 실태조사 결과 작년 로또를 한 번이라도 샀다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62.4%였다. 전체 인구에 이 비율을 대입해 보면 1인당 13만4000원어치를 구매한 셈이다. 작년 판매액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18억3000만 원어치가 팔렸다.

기재부는 지난해 판매점이 늘어나고 인터넷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매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839곳으로 324개가 신규 개설됐다. 2018년 12월 처음 시작한 인터넷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4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소상공인 ‘코로나 대책’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본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심사필 제 17-04061호(2019.11.15~2020.11.14)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75-158호(2019.11.15~2020.11.14)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권 학원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뱅크, 롯데뱅크, 명품뱅크, 만디얼뱅크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 할인
-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인, 무염콜레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 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타일 100원 할인
- CMA 금융서비스혜택**
RI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신청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제타인출
-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셔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과 보험에 비해 채권보통형보다 수익률이 높으며, 운용·평가·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혜택 시 0.014%의 주저택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美, 현대제철 반덤핑 관세 대상 제외

“싼 한국 전기료, 보조금 야나” 정부 “對美 수출 여건 개선 기대”

현대제철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철강업체의 관세 부과율도 하향 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미국 보조금 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강판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2.43%, 나머지 기업 2.43%다.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결정된 바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1차와 마찬가지로 0%가 나오면서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게 됐고 동국제강과 다른 업체의 관세율도 소폭 낮아졌다.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의 경우 1차 판정(0.57%)보다 소폭 내려간 0.44%를 산정했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이 된다.

동부제철은 8.47%에서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이번 판정은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 제조사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 보조금 형태로 국내 철강업체를 지원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왔다.

정부는 제조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상무부는 한국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 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도금강판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코로나에 '하나의 유럽' 흔들...시험대 오른 '열린 국경'

트럼프 "유럽발 미국 여행 금지"...글로벌 고립주의 불 지피 伊 '봉쇄령' 이어 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 등 국경 통제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에서 고립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열린 국경'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유럽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글로벌 고립주의 확산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대국민 연설에서 "13일부터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여행을 중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26개국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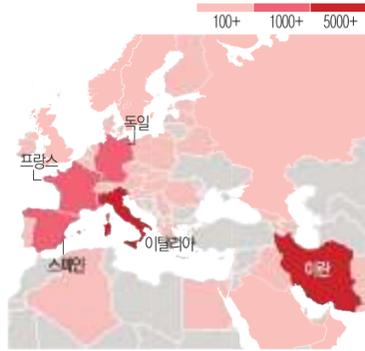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경이 없는 유럽 내에서도 입국 금지 움직임이 확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소수 비회원국 등 26개국은 쉐젠 조약에 따라 여행객이 비자나 여권 검사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경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유럽의 열린 국경 원칙은 흔들리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이 코로나19가 잠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이탈리아에 대해 국경 통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슬로베니아는 전날 이탈리아와 접한 국경 232km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마르얀 세렉 슬로베니아 총리는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봉쇄령으로 인해 누구도 여행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처에 나서게 됐다"며 관계 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댄 오스트리아도 같은 날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국경 통제 수위를 높였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이탈리아에서 오는 여행객들은 건강 증명서가 없거나 입국한 뒤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럽에서는 당초 현안이었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미래관계 협상은 뒤로 밀리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까지 간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 됐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나의 유럽'이라는 통합정신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잡아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루크제이나 라이힐린 런던 경영대학원

유럽·중동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한국시간 12일 오전 11시 기준)



국가별 확진자·사망자 수		확진 사망			
국가	확진	사망	국가	확진	사망
이탈리아	1만2462	827	네덜란드	503	5
이란	9000	354	스웨덴	500	1
프랑스	2281	48	노르웨이	489	0
스페인	2277	55	영국	460	8
독일	1966	3	벨기에	314	3
스위스	645	4	카타르	263	0
덴마크	514	0	오스트리아	246	0

* 출처: 명진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글을 통해 "코로나19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반 성장 둔화 혹은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경기 침체는 개별국가에서 일어난 경기 침체보다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특히 EU와 같이 개방된 경제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더군다나 지금은 모든 EU 회원국들이 심한 충격을 받고 있어서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보다 서로를 도울 능력이 훨씬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미 유럽 국가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에서는 경제적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전례 없는 전국 이동제한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약국 등 생필품 판매 업소를 제외한 모든 상점에 휴업령을 내렸다.

앞서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선언을 철회하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다. 만일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그때처럼 장기화한다면 역대 왕래 중단과 소비 침체 등으로 인한 경기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효선 기자 hsbun@



美 증시 폭락...낙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11일(현지시간) 트레이더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낙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날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1400포인트 이상 급락해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 뉴욕/AP연합뉴스

'737맥스' 참사에 코로나19까지 직격탄

보잉 '날개 없는 추락'...현금 확보 '비상'

주가 18%↓...2월 수주 46대 줄어 운항 중단·여객기 주문 잇단 취소 비용절감 위해 신규 채용도 중단

'737맥스' 추락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날개 없는 추락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보잉 주가는 18%가량 폭락해 1974년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것이 다우지수를 284포인트 이상 깎아 먹으며 지수의 약세장 진입을 부채질했다.

WSJ는 두 차례의 737맥스 기종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한 운항 중단에 주문 취소까지 이어지면서 보잉의 자금 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보잉은 2월 신규 수주에서 취소를 뺀 순수주가 마이너스(-) 46대라고 밝혔다. 추락 사고로 공지에 몰린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항공 수요 급감에 한층 더 어려운 지



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어어 여객기와 지난해 3월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가 추락,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항공사들은 줄줄이 사고 기종의 운항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맥스' 기종 주문 취소만 약 200대에 달했다. 보잉은 운항 정지 조치 이후에도 한 달에 40대꼴로 737맥스

생산을 계속했지만, 판매가 어려워지자 올해 1월에는 급기야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확보한 138억 달러(약 16조5000억 원)의 신용 한도도 예상보다 일찍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잉은 737맥스 운항 재개에 대비하고, 보유 현금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은행단으로부터 신용 한도를 늘려 받았다. 이 중 이미 약 75억 달러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13일이면 고갈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 혼란과 여객 감소에 대비한 현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 결국 보잉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조직의 미래인 신규 채용까지 중단했다.

데이비드 칼훈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어떤 회사라도 어려운 시기에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일 ICE데이터서비스에 따르면 보잉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141bp(1bp=0.01%) 상승한 218bp를 기록했다. 부도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김서영 기자 0jung2@

'코로나 검사 100만명 무상 지원' 2시간 만에 철회한 손정의, 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의료 혼란" 비난 여론에 취소

손정의(사진)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아보는 간이 유전자 검사(PCR검사)를 100만 명에게 무상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두 시간 만에 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 회장은 10일 3년여만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 "코로나 상황이 걱정된다.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손 회장은 11일 저녁 6시 25분

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있는 분들에게 간이 PCR 검사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먼저 100만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신청 방법 등은 앞으로 준비"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린 지 불과 약 2시간 만인 오후 8시 34분에 그는 "검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들어서 제안한 것인데, 여론이 나빠서 그만뒀어"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덧붙여 "의미 있는 제안이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PCR 검사를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무상



으로 제공할 경우, 의료 기관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는 비판이 우세했다. 또 검체 채취 시 감염 위험, 검사의 정확성, 검사 후 바이러스 배양 검사되는 병원의 부담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병원을 섭외하고, 감염을 늘리지 않도록 집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다.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재단과 비슷한 방식"이라며 간이 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이 워낙 강해 결국 지원 계획을 철회하게 됐다고 불륨버그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의 선의가 코로나19 공포에 밀려 퇴색됐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수경 기자 sue6870@

美 기업들, 코로나 감염 직원 '유급병가'

아마존·월마트 등 복리후생 개선

미국 주요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등 복리후생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참고 시간제 직원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감염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무급 휴가에서 처우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마존은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배송 협력사와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2500만 달러(약 301억4000만 원) 규모의 구제기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급증으로 주요 기업들이 재

택근무에 들어갔지만 참고 및 배달 근무자들의 경우 현상을 떠날 수가 없다. 게다가 미국 근로자 처우 제도가 허술한 탓에 근로자 4명 중 1명은 유급 병가가 없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병가가 유급 휴가로 인정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특히 서비스업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유급 휴가를 인정받지 못한다. 배달, 점원, 택시 운전자 등 대중을 상대로 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이 경제적 문제로 위기에 노출된 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에 기업들이 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다. 고용 직원이 15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격리 조치에 들어간 직원에게 최대 2주간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0jung2@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희
망
이

피
어
나
도
록

Hope. Together.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의
희망이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한이 여러분과 함께 소셜 기부 프로젝트
Hope. Together. 캠페인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넘어
더 건강해질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신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셜 기부 프로젝트 **Hope. Together. 캠페인** 참여 방법은 신한금융희망재단 홈페이지 또는 와디즈에서 확인 가능하며, 조성된 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등 의료진, 소외계층 아동,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산은, 4500억 유증... 中企 성장·경영 정상화 돕는다

기명식 보통주 9010만 주 발행 혁신모험·기업 펀드 조성 등 활용 경제 활성화·금융 취약계층 지원

KDB산업은행이 기업구조혁신펀드와 혁신모험펀드 등에 사용되는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산업은행이 출자한 금액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에 사용되거나, 경쟁력을 갖춘 부실장후 기업에 수혈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의결된 총 4505억 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완료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기명식 보통주 9010만 주에 해당한다.

이는 혁신금융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올해는 산은이 4505억 원, 기업은행이 264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00억 원, 기타사업이 829억 원 등

을 출자할 방침이다. 여기에 공적자금상환 기금 2조1000억 원을 더해 총 3조 원 규모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올해 세출 예산을 확정하면서 혁신모험펀드와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등 혁신금융 분야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포용금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예산은 크게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으로 나누어 사용되는데 산은이 출자한 약 4500억 원은 주로 혁신금융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혁신모험펀드 조성에 500억 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 880억 원, 기업구조혁신펀드에 750억 원 등이 쓰인다. 이 밖에 환경·안전투자 지원에도 375억 원 등이 사용된다.

혁신모험펀드는 중소 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된다. 500억 원의 출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이다. 기업 성장 단계별로 중소 벤처기업과 중견기업에 성

장자금이 공급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부실장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는 산은과 수은 등 채권은행이 주로 담당했던 전통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을 탈피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조성됐다.

특히 부실장후 기업 중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예산은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이다. 이들 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적으로, 시설투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 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제2 DLF·라임사태 차단” 고위험 금융상품 밀착검사

금융감독원 ‘2020 업무계획’ CEO 중심 내부통제 강화 P2P 감독·검사 조직 확대 총선 전 테마주 등 기획조사

금융감독원은 올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에 대해 밀착검사를 진행한다.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수조 원대 피해를 남긴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상품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심사와 판매감독, 분석 기능을 소비자보호처로 통합해 단계별 영업행위를 검사한다. ‘무늬만 사모펀드’ 근절을 위해 공모판단 기준을 명확화하고, 관련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전문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GA), P2P 업체 등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사를 한다. 자산관리 영업은 물론, 전문사모 운용사의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펀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보험회사와 GA간 과도한 선지급수당, 수수료 목적 가공계약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검사 조직을 확대한다.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허위 대출,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금융감독원은 “원금비보장 상품 판매와 사후관리 전 과정을 규율하는 은행권 자율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할 것”이라며 “최고경영진과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담은 핸드북을 배포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무자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 제고 주요 추진 과제

- 1. 금융 시스템 안정** 안정
 - 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
 - 시스템 리스크 선제적 대응
 - 건전성 감독 강화
 - 상시감시 체계화 및 검사 효율성 제고
- 2.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공정
 -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3.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포용
 - 금융소비자 보호·피해구제 기능 강화
 - 포용금융·사회적금융 확대
- 4.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혁신
 - 금융산업 혁신 지원·금융감독 역량 강화



본 M&A 사건 전담 조사기구를 운영하고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원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썬테크(SupTech)’ 기반의 차세대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선 △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과다 기업 △최대주주 사의 편취 △업황악화 취약업종 등 4대 회계 취약 부문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시장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밀착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과 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펀드 실흠 현상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는 불건전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은행연합회는 경기도 고양시 한국화훼농협에서 약 10만개의 화분을 기부하는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왼쪽부터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강성해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회장, 박천호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회장. 사진제공 은행연합회

코로나 피해기업 4.6조 지원... 도매업 7039억 ‘최다’

금융권 지원방안 이행 현황 점검

금융위원회는 10일까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금융권에서 총 4조6346억 원이 지원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7일과 28일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신규자금 지원은 총 2조633억 원이 실행됐고, 기존자금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는 2조4060억 원이 이뤄졌다.

기타 수출입 금융과 금리, 연체료 할인, 이자납입 유예 등으로는 1653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됐다.

업종별로는 도매업(7039억 원), 음식점업(4998억 원), 소매업(4853억 원)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조



손병두(가운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7892억 원(4만2693건), 민간금융 회사를 통해 1조8454억 원(1만8120건)이 지원됐다.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진 상담 건수는 총 15만3713건이었다. 이 중 이달

4~10일까지 상담은 6만4760건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6만9044건)과 지역신용보증재단(4만3391건)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감독원에도 각각 6254건, 624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4만8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2만8890건), 도매업(1만2823건), 여행·레저업(4197건) 등의 문의도 지속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애가 타는데, 자금공급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 기준을 변경한 경우 금융권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책, 검사면제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는 IBK충주연수원은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위치해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극복과 고통 분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jinsan@**

기업銀 충주연수원, 생활치료센터로 변신

IBK기업은행은 임직원 교육시설인 충주연수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의 치료시설 부족으로 자

가격리 중인 경증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입소 인원은 179명이며, 70여 명의 의료진과 행정인력이 상주한다.

25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수

보유 주식 7만3127주로 늘어

손태승(사진) 우리금융 회장과 경영진이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1만1800여 주를 매수했다.

12일 우리금융은 손 회장 5000주를 비롯해 이원덕 부사장, 박경훈 부사장, 신명혁 부사장, 정석영 전무 등이 자사주 1만1782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올 초에도 5000주를 매수한 바 있다. 이로써 손 회장의 보유 주식은 7만3127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밸류에이션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리금융은 미·중 무역분쟁과 금리 하락 등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 비은행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지주사 전환 원년에 그룹체제를 세웠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초 계획했던 일정이 순연 중이나, 사태가 진정되면 적극적으로 국내외 기업설명회(IR)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추경 늘리고 금리 인하해야”...상의, 코로나 긴급 건의

정부에 탄력근로제 확대·금융소외기업 지원 등 촉구 8대 분야 30개 과제로 '성장률 1%p 하락'에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곁돌고 있다. 위기에 빠진 기업에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과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펴 달라는 요청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추경 규모(11조7000억 원)로는 성장률 하락 방어 효과가 0.2%포인트(P)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 규모(28조4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 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상의는 기존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자체가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나왔다.

이에 대한상의는 △코로나 피해기업 지

원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 직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조업 재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줄 것과 업무 정상화를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업종별로 전방위적 충분한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들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 차질, 수출애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 애로까지 겪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업종별 피해 상황도 만만치 않다. 코로

나 피해에 기존 규제가 겹쳐 이고고를 겪고 있다. 유통업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 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사위기에 있는 항공업계에는 미·중·EU(유럽연합)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항만당국의 항만입대로 부담 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를 주문했다. 또 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정유·화학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시 가이드라인대로 시설을 폐쇄할 경우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이 낮다. 이와 관련해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 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각계 대응을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 자가격리 직원·TK 부모에 ‘응원 선물’

이재용 “어려울 때 힘 모아야” 8500명 홍삼·비타민 등 발송



2500여 명과 임산부 1800여 명을 포함한 재택근무자 5000여 명 등 8500여 명에게 격려 물품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은 해외에서 자가격리 또는 재택근무 중인 현지 임직원 1000여 명에게도 격려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는 삼성 협력사 직원들은 반도체 설비부터 스마트폰 부품 제조, 환경미화 등 삼성 사업장 안팎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은 인력들이다. 이 밖에도 삼성은 이번 사태로 근무자 교대가 이뤄지지 않아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출장자들의 국내 가족들에게도

격려 물품을 준비해 전달하기로 했다.

격려 물품은 △손 소독제와 핸드워시 등 감염 예방 용품 △홍삼과 비타민 등 개인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 보조식품 △컵밥과 간편식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됐으며, 각 계열사 대표이사 명의의 격려 편지와 함께 보내졌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모든 임직원이 다 함께 한마음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자”고 격려했다.

삼성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 부모·처가·사부모를 대상으로도 격려 물품과 동일한 구성의 위로 물품을 대표이사 편지와 함께 보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또는 재택근무 중인 임직원들에게 감염 예방용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응원하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활짝 웃으며 마주하자”고 말했다.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을 비롯한 18개 계열사와 자회사 및 협력사 임직원 가운데 자가격리 중인



제네시스 G90, 美서 가장 안전한 차

IIHS 충돌 평가서 최고 등급 G70·G80 세단 소 모델 획득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최고급 모델 G90이 미국 충돌 안전도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제네시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하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에 G90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2월 G70과 G80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은 것에 이어 G90까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게 됐다. 세단 전 라인업이 모두 최고 안전한 차에 선정된 셈이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매년 출시된 수백 대에 달하는 신차를 대상으로 충돌 안전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그 가운데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매긴다.

김준형 기자 junior@

벡센타이어 엔페라 스포츠 獨 전문지 ‘강력 추천’ 등급

벡센타이어의 ‘엔페라 스포츠’ 제품이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틀트(Auto Bild)’가 실시한 여름용 타이어 테스트에서 ‘강력 추천’ 등급을 받았다.

12일 벡센타이어에 따르면 유럽의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지로 꼽히는 ‘아우토틀트’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아우토틀트’는 이번 테스트에서 주요 브랜드 50개사의 여름용 타이어를 구매해 ‘BMW 5시리즈’ 차에 장착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쫓은 노면, 마른 노면의 제동력 시험을 1차로 진행했고, 이 중 20위 이내 업체에 대해 핸들링, 주행 안정성, 마모, 소음 등을 평가해 종합 결과를 발표했다.

벡센타이어 유럽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엔페라 스포츠’는 높은 점수를 받아 6위를 차지하며 최고 등급인 ‘강력 추천(Very Recommendable)’을 받았다.

‘엔페라 스포츠’는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의 주행 안정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동력 테스트에서도 호평받았다. 특히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 환경 개선을 위한 소음 성능을 강조하며 규정을 대폭 강화했는데, 소음 항목에서는 66.6데시벨로 단독 1위에 올랐다.

유창욱 기자 woogi@



내 맘대로... ‘XM3’ 액세서리 출시

르노삼성이 소형 SUV ‘XM3’ 전용 액세서리를 12일 출시했다. 새로 선보인 XM3 액세서리에는 △보디킷 트 △리어 스포일러 △트렁크 라이너 △프리미엄 스포츠 페달 △360도 3D-HD 스카이뷰 카메라 등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보디킷과 리어스포일러를 장착한 XM3.

사진제공 르노삼성

티웨이, 무통장 결제시스템 구축

티웨이항공은 10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 업계 최초로 무통장 입금 결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통장입금 결제 서비스는 특히 본인 명의 카드가 없는 청소년이나 외국인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무통장입금 결제를 원하는 고객은 항공권 예약 진행 중 결제 단계에서 결제 수단으로 ‘국내 무통장입금’을 선택하면 고유의 가상 계좌번호가 발급되며 3시간 이내 입금하면 항공권 발급이 완료된다.

티웨이항공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티웨이항공 전용 간편결제 외에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국내외 11개의 간편결제 서비스와 결제시한 연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지난달, 작년 대비 30% 성장

LG전자의 대표 스팀 가전인 트롬 스타일러가 올해 들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G전자는 트롬 스타일러의 2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한 번에 최대 6벌까지 관리할 수 있는 대용량 제품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약 50% 증가하며 스팀 가전의 성장을 견인했다.

2011년 의류관리기 사업을 시작한 이래 스타일러의 월 판매량은 지난해 최대를 기록했다.

LG 트롬 스타일러는 특허받은 트루스팀(TrueSteam)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의류 관리 문화를 만든 대표적 스팀 가전이다.

100도(°C)의 트루스팀은 스타일러를



비롯해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생활가전에 적용돼 살균, 세척, 탈취, 주름 완화 등의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트롬 스타일러의 위생살균 표준코스는 한국의과학연구원의 실험 결과 녹농균, 폐렴간균, 대장균을 99.99% 제거한다. 위생살균 바이러스코스는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 실험 결과 H3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 제거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애플 올라탄 LGD, 작년 모바일 매출 4년 만에 반등

4분기엔 TV 패널 매출 넘어
스마트폰 OLED 점유율 10%
올해 코로나로 매출 타격 우려

LGD 모바일 매출
(단위: 조 원)



LGD디스플레이의 지난해 모바일 패널 매출이 증가하며 반등세를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 판매가 호조를 띠면서 매출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LG디스플레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제품 매출은 6조4147억 원으로 전년 5조7416억 원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D디스플레이의 모바일 제품 매출은 2015년 7조9584억 원을 기록한 뒤 2016년 7조2570억 원, 2017년 7조650억 원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2018년에는 5조7416억 원으로 5조 원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조 원대로 반등한 것이다.

모바일 제품 매출은 지난해 태블릿 패널(13.1%)과 함께 유일하게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TV(-17.8%), 데스크톱 모니터(-0.3%), 노트북 컴퓨터(-

1.9%) 등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모바일 제품이 LG디스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전년 대비 3%포인트(P) 증가했다.

LGD디스플레이의 모바일 패널 매출 성장은 애플 아이폰11에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를 본격 공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G디스플레이의 작년 4분기 매출 가운데 모바일 패널 비중은 36%로 처음으로 TV패널 매출을 앞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라

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용 OLED 패널 매출 기준 점유율 10.8%를 기록했다. 2017년 1%대에 불과했던 점유율은 2018년 2%대에서 작년 4분기 10%대로 뛰어올랐다. 작년 3분기(2.1%) 대비해서도 5배 이상 높아졌다.

LGD디스플레이 관계자는 "OLED TV 및 플라스틱 OLED 스마트폰 출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면적당 판가가 전 분기 대비 18% 상승하며 전 분기 대비 매출이 10% 증가했다"면서 "플라스틱 OLED 전략 거처선에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며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물량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로 작년과 같은 모바일 패널 매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코로나19 사태로 부품 공급망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용 아이폰인 '리퍼비시(refurbish·재생)' 제품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리퍼비시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폰 수리를 위한 개별 부품도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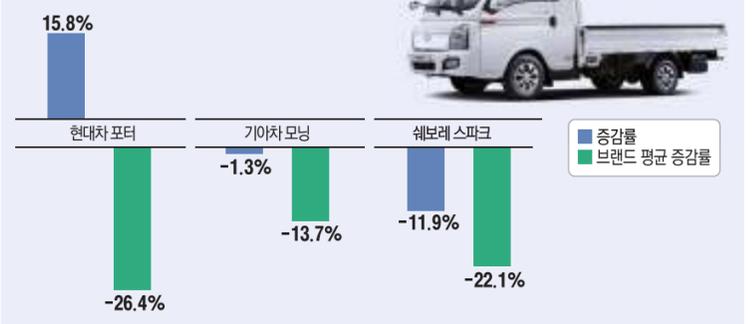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전략 제품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미 폭스콘, 페가트론 등 협력사의 생산 차질 이슈가 불거졌다.

LGD디스플레이 서동희 CFO(최고재무책임자)는 1월 말 열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플라스틱 OLED 사업 환경은 결

코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기회 또한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LG디스플레이는 플라스틱 OLED 사업 운영에 대한 전략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성장기반을 착실히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1톤 트럭 및 경승용차 2월 판매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1톤트럭·경차만 잘 팔렸다 자동차 '불황형 판매' 뚜렷

지난달 내수 22% 감소에도
현대차 포터 두자릿수 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내수 자동차 시장도 불황형 기조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내수 판매가 전년 대비 22%나 하락한 가운데 불황이던 더 잘 팔린다는 1톤 포터는 오히려 두 자릿수 이상 판매가 증가했다.

12일 완성차업체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 1톤 트럭 포터 판매는 787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7대)보다 15.8% 늘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여파에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산 부품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완성차 공장이 켜지는 3일, 길게는 9일 동안 휴업했다.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내수 자동차 판매는 작년 2월보다 21.7%나 감소한 8만1722대에 그쳤다.

전체 내수시장이 약 22% 감소한 것은 물론, 현대차 2월 판매도 전년 대비 26.4% 감소한 가운데 1톤 포터 판매만 겨우 크게 증가한 셈이다.

1톤 트럭은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맞물

려 주문하면 바로 신차를 출고할 수 있다. 몇 개월씩 출고를 기다려야 하는 여느 인기모델과 달리, 산업 수요와 공급량이 적절하게 맞물린다는 뜻이다.

업선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2월에 출고된 신차 대부분이 1월 말 또는 2월에 계약된 차들이다.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여파를 고스란히 반영한 셈이다.

경차 판매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달 기아차 모닝 판매는 작년 2월보다 1.3% 감소한 3310대에 머물렀다. 판매가 소폭 줄었지만, 이 기간 기아차 전체 판매가 13.7%나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준중형차 예비고객을 포함한 시장 수요가 경차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준중형차 K3와 쏘울 판매는 각각 46.8%와 35.4% 감소했다.

이처럼 1톤 포터의 약진과 경차 모닝의 선방은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 불황 기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2월 현대차의 효자 모델인 그랜저와 8세대 쏘나타 판매는 전년 대비 각각 19.3%와 21.8% 감소했다.

김준규한국자동차산업협회조사연구실장(상무)은 "1톤 트럭을 포함한 소형 상용차 판매 추이는 경기불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삼성, 유럽 특허출원 2858건으로 2위

LG 2817건 3위 ...화웨이 1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유럽 특허청(EPO) 출원 순위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7년간의 우리나라 기업 특허 출원 기록 중 지난해가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2일 발간된 EPO의 2019년 특허 지수에 따르면, 한국에서 신청한 EPO 특허 출원 수는 전년 대비 14.1% 증가한 8287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EPO의 특허 최대 출원 상위 10개국 중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EPO 회장 안토니오 캄피노스는 "한국 기업들은 이제 EPO 특허 출원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상위 5개국은 미국(전체의 25%), 독일(15%), 일본(12%), 중국(7%), 프랑스(6%)가 차지했다. 한국은 6위(5%)로 전년보다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과 LG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2858건의 특허를 출원한 삼성이 2019년 EPO 특허 출원을 가장 활발하게 한 한국 기업으로 기록됐다. LG(2817건)가 그다음 순위를 차지했으며, 포스코(156건), 현대(118건), CJ제일제당(69건)이 그 뒤를 이었다.

EPO 전체 기업별 상위 특허 출원인 순위에선 삼성과 LG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각각 한 계단씩 뛰었다. 1위는 중국의 화웨이, 4위는 미국의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5위는 독일의 지멘스가 차지했다.

송영록 기자 syr@



CJ오쇼핑 3/13(금) 오후 7:35 방송

CJ ENM (www.CJmall.com / 080-000-8000)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 낮아도 받을 수 있나요?

#중업원 3명과 함께 김밥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타격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려는데 낮은 신용등급이 마음에 걸려 엄두도 못 내고 있다. A 씨의 신용등급은 10등급 중 8등급이다. 다만, 최근에 체납액을 정리해 현재 연체한 국세·지방세는 없다. A 씨는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직원 5인 미만, 매출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대상
최대 7000만원까지 5년 이내 1.5% 고정금리 대출
신용등급과는 무관...국세·지방세 체납뎀 지원 못받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금을 두고 채무가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고민하고 있다. 소진공이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경영안정자금은 직원 5인 미만, 매출이 작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직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은 낮지만, 현재 상태에서 체납액이 없는 A 씨는 결과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또는 신용·부동산 담보 평가, 이후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이 이뤄진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주'에 해당하는 8등급이더라도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용자조건
- 대출한도: 업체당 7000만 원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5년 이내

지원자격
- 음식, 숙박, 도소매 업체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한 업체

지원방법
1. 코로나19 피해확인서 발급 (온·오프라인 발급 신청: 매일 200억 원 한도 내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2.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 신용보증 재단 방문)
3. 대출 실행 (대출 실행 가능한 시중은행 방문)

받는데 그 기준이 현재 연체 여부"라고 설명했다. 즉 똑같은 8등급이어도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된 사람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8등급보다 더 낮은 신용등급이라도 최근 연체를 다 갚고, 신용등급 정상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계속 기업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는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을 자체적으로 13단계로 구분한다. 가장 높은 1등급, 가장 낮은 13등급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진공 관계자는 "신용등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성과 사업성"이라며 "신용등급이 높다고 대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더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경영자금을 신청해도 탈락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작년 매출이 0인 쯤비기업이거나 경영상 실패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가 그 예"라고 설명했다.

즉, 기업으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 역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는 말이다. 신용

등급이 높더라도 계속 기업으로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라면 자금 지원이 어렵다. 다만, 중진공은 이 같은 평가 모형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중소기업창업(중기부) 산하 4개 기관 소진공, 중진공, 지역신보, 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자금 신청 건수는 총 11만988건, 규모는 5조2392억 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소진공(6만 8833건, 3조5977억 원) △지역신보(4만1143건, 1조3589억 원) △중진공(773건, 2411억 원) △기보(240건, 416억 원) 등의 순서로 소상공인 수요가 다수를 차지한다.

현재 기준 집행 규모로는 1만217건(신청 대비 9.2%)에 4667억 원(신청 대비 8.9%)이다. 기관별로는 △소진공 3726건, 1648억 원 △지역신보 5980건, 1874억 원 △중진공 331건, 829억 원 △기보 180건, 316억 원이다.

이진민 기자 aaa3469@

“스마트홈과 경비시스템을 앱 하나로”

SKT, ADT캡스와 함께 '캡스 스마트빌리지' 출시 경비실 거치지 않고 앱으로 출동·순찰·방범 강화 요청



SK텔레콤은 ADT캡스와 함께 공동주택 환경에 꼭 필요한 스마트홈 기능과 보안 서비스를 결합한 '캡스 스마트빌리지'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업체들이 입주인 편의를 위한 각종 IoT·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제각각 다른 표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해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SK텔레콤과 ADT캡스는 이러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공동주택단지 IoT 플랫폼인 '스마트홈 3.0'에 ADT캡스의 보안서비스를 결합, 하나의 서비스로 묶은 '캡스 스마트빌리지'를 선보였다.

양사는 입주인들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용 앱을 준비해 입주인들이 하나의 앱에서 스마트홈과 보안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캡스 스마트빌리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스마트홈의 기능과 경비시스템의 결합이다. '캡스 스마트빌리지'는 기존에 관리실을 방문해 해결해야 했던 △단지 내 출동·순찰 요청 △장기 부재 시 세대 방범 강화 요청 △방문차량 예약관리 △커뮤니티 예약관리 등을 전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캡스 스마트빌리지' 적용 단

지의 주민들은 별도의 방문이나 전화 통화 없이, 앱 실행만으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캡스 스마트빌리지'는 기존 SK텔레콤의 '스마트홈 3.0'의 다양한 IoT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인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한다.

SK텔레콤 '스마트홈 3.0'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AI를 통한 가정 내 IoT기기 및 빌트인 기기 제어 △공동 현관문 자동 출입 △주차 위치 확인 △무인택배 도착 알림 △단지 내 투표 등으로, 입주주민은 전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캡스 스마트빌리지'는 ADT캡스의 통합경비시스템, 지능형CCTV, 차량관리 및 화재감지 등 아파트 맞춤형으로 강화된 보안 서비스를 통해 입주주민에게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을 제공한다.

SK텔레콤과 ADT캡스는 향후 '캡스 스마트빌리지'에 정보보안 서비스, 캡스 홈 도어가드 등 보안 서비스, T맵 주차 등을 적용해 고객 가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5G 클라우드 게임, 부담없이 즐기세요”

LG유플러스는 5G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4월 1일부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를 모든 5G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 모델들이 5G 클라우드 게임 '지포스 나우'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술도 모바일 주문 가능해진다

나우버스킹, 규제 샌드박스 통과... 내달부터 본격 사업

“이제는 술도 모바일로 주문한다.”

12일 나우버스킹이 신청한 '주류 스마트 주문' 과제가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주류만 단독으로 모바일로 주문하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종합 매장 운영·분석 서비스 '나우웨이팅'을 운영하는 나우버스킹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제도 개선 과제가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처리된 덕분이다.

그동안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스마트 주문' 서비스는 주류를 단독으로 주문·결제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아 수제맥

주 전문점 등 주류 판매 위주의 일반음식점이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된 국세청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 주문 방식의 주류 판매가 허용되면서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외식업소는 물론 운영 효율화가 절실한 야외 페스티벌 등에서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나우버스킹은 규제특례 샌드박스를 진행하며 주류 스마트 주문 시 필수적인 성인 인증 절차나 고객 주문 정보를 매장에 전달하는 운영 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다음 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영희 기자 che@

YBM넷 “코로나19 극복 동참” 온라인 영어도서관 무상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돼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YBM넷이 신청하는 모든 학교에 미국 교과서 온라인 도서관 'YBM리딩팜'을 올해 1학기 동안 무상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YBM리딩팜' 홈페이지나 외국어 교육전문 교원연수기관인 'YBM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31일까지 받는다. 교사 개인이 맡고 있는 학급 단위 혹은 학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2~3일 뒤에 YBM리딩팜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별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용 설명서를 받게 된다. 또, 학교별 관리 페이지도 제공돼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이재훈 기자 yes@

시큐아이, 무선 데이터 보안 시장 진출

지스과 무선 해킹탐지 사업 협력

삼성SDS 자회사인 정보보안 전문기업 시큐아이와 무선 해킹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는 획기적 솔루션을 확보해 무선 데이터 보안 시장에 진출한다.

12일 시큐아이는 국내 유일의 무선 데이터 해킹 탐지 솔루션 전문기업인 지스과 판매·마케팅을 위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스의 무선 데이터 해킹 탐지 솔루션은 데이터센터 내 해킹이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24시간 365일 감시한다. 또한 무선 백도어 해킹 시도를 관제·통제시스템에 즉각 통보함으로써 신종 데이터 보안위협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무선 백도어 해킹은

무선 송수신 기능이 탑재된 초소형 스파이 칩으로 구동되는 서버 무선 공격으로, 기존 보안시스템을 우회해 목적하는 서버에 무선으로 직접 접속할 수 있어 치명적이다.

앞으로 시큐아이는 무선 네트워크 비인가 접속차단 솔루션을 추가로 확보해 유무선 통합 보안 솔루션 공급에 대한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환진 시큐아이 대표는 "5G, 와이파이 6 등 보급에 따른 고객의 IT인프라가 무선으로 확장되며 무선 보안 위협에 대한 빠른 대응은 필수적"이라며 "시큐아이의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 기술력과 지스의 무선 보안 기술을 결합해 국내외 유무선 보안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희 기자 che@

KT, 민간·금융기관 대상 '모바일 통지 서비스' 임시허가

앞으로 국민들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건설사나 은행 등 민간, 금융기업에서도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KT는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2020년 1차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법 또는 규제에

따라 안내 문서를 보내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해 준다. KT는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는데,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이재훈 기자 yes@

‘코로나와의 전쟁’ 나선 서정진 “반년 내 치료제 임상”

(셀트리온 회장)

온라인 기자간담회 통해 셀트리온 종합 대응방안 발표
신속 진단키트·멀티항체 치료제 개발에 3000억 투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인천·청주 주민 마스크 무상공급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먼저 착수한 신속진단키트 개발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감도와 정확도를 충족하는 항체를 스크리닝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해 최소 3개월 내 상품화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10~20분 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역전사 전방 유전자 증폭 기술(RT-qPCR) 2차 검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정확도를 함께 갖추는 것이 목표다.

제품이 개발되면 한국은 물론 빠른 진단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유럽, 미국, 중동 지역 국가들에 우선 보급해 이들 국가가 자국 내 확진 환자를 신속히 구분·격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전 세계적인 확산 속도를 낮추는 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글로벌 허가를 전제로 임상을 디자인했으며, 전 세계에 허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진단키트의 임상 평가를 마치고 6월까지 허가절차를 마쳐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의료진 인력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일일 최대 10만 개의 진단키

트 공급을 논의 중이고, 상용화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마스크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셀트리온그룹의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청주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 취약계층 15만 명, 인천 송도 주민 16만 명, 청주 취약계층 4만 명, 오창읍 주민 7만 명, 진천군 주민 8만 명 등 50만 명에게 우선 제공한다.

셀트리온은 이들에 대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방진마스크를 책임지고 공급할 방침이다. 이 마스크는 필터를 추가해 장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며,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MB필터를 대체할 수 있는 필터도 개발한다.

서 회장은 “전 세계 항체 개발이 가능한 회사 중 바이러스 항체 개발은 셀트리온이 가장 빠른 속도일 것”이라며 “상업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빨리 치료제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셀트리온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키트 개발에 속도를 낸다. 치료제는 6개월 내 대규모 임상을 통해 최대한 많은 환자에게 투여할 계획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12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료용 항체 관련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6개월 내 코로나19 치료제의 본격적인 환자 투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임상 2b상을 완료한 인플루엔자 멀티항체 신약인 CT-P27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치료용 항체인 CT-P38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19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해 추후 바이러스 변이에 대비한 멀티항체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다. 연구기관과 공동연

구를 통해 중화항체의 중화능을 평가하기 위한 중화법도 조속히 확립해 6개월 내에 중화능 항체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셀트리온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완치 환자의 혈액을 제공받아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연구실 인력을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 회장은 “이달 중 항체를 선택해 4월 말까지 항체의 바이러스 중화 능력을 테스트하고 필요한 항체를 찾겠다”면서 “이 항체의 세포주를 개발해 임상용 항체를 생산하면 이후 임상을 통해 인체 투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임상 규모를 최대한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개발 중인 치료제를 투여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임상 1상은 25~50명, 2상은 100~200명

의 환자를 모집하지만 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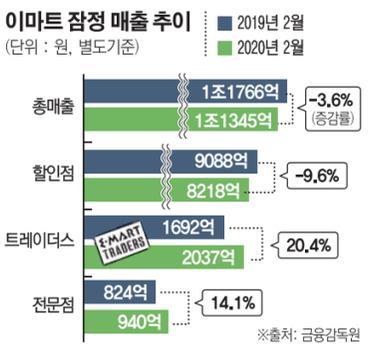
서 회장은 “임상 1상에 개발비 200억 원을 책정했으며, 3상까지는 총 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환자 수만큼 임상 규모를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쟁여야 안심”... 창고형 할인점에 소비자 몰렸다

이마트 총매출 떨어지는데 트레이더스는 20.4% 늘어
홈플러스 ‘더클럽’ 3배 급증
생필품·식재료 등 매출 주도



12일 서울 홈플러스 목동점에서 모델들이 대용량 생필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생필품 공급 안정을 위해 18일까지 ‘더클럽’ 온라인몰에서 대용량 생필품 할인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필품 소비가 늘면서 창고형 할인매장에 다시 소비자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택 근무와 개학 연기로 가족들이 집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식 대신 집밥 문화가 확산하면서다. 외출 자제 속에 식재료와 생필품에 대한 장기 저장 목적의 소비가 커진 덕분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이마트의 총매출액은 1조134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지난해 설 명절이 2월 말이었다는 것과 달리 올해는 1월 말이었다는 점이 컸다. 세부적으로 할인점은 8218억 원으로 집계돼 9.6% 줄었고, 기타는 150억 원으로 7.4% 축소됐다.

하지만 창고형 할인매장의 매출은 치솟았다. 트레이더스 매출은 2037억 원으로 20.4%나 뛰었다. 전문점 매출도 940억 원으로 14.1% 상승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용량 생필품 수요가 늘었다”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트레이더스에 고객이 몰렸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전체 발걸음은 줄었어도 한 번 들를 때 구매하는 액수가 늘었다는 얘기다.

홈플러스 역시 대용량 소비가 증가했다. 2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창고형 스페셜 매장의 온라인몰 ‘더클럽’ 매출은 한 달 전보다 22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은 243%나 뛰었다. 일반적인 온라인몰보다 2배 이상 높은 신장률인데다, 1월 설 명절 특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이례적이다.

특히 신선식품(328%)과 간편식을 포함한 가공식품(196%)의 매출이 늘며 먹거리가 전체 매출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홈플러스는 집밥 수요 증가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재료를 쟁여 두려는 고객

들이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창고형 온라인몰로 몰린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발걸음을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끌기 위한 대형마트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마트는 최근 품질을 유지하고, 가격을 파괴한 ‘핫딜’ 아이템을 확대하고 있다. 2일 ‘마이 스파클링워터’에 이어 3월 중 ‘내 몸에 건강한 혼합10곡’을 비롯해 잠잠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핫딜’은 트레이더스가 품질과 가격을 보장하는 새로운 가격파괴 상품 라인이다. ‘PL(자체개발)’ 상품이 아닌 단독 기획 상품 개념의 ‘PNB(Private National Brand)’ 형태이며, 트레이더스의 기존 일반 브랜드 상품 대비 20~30%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핫딜 상품은 올해 말까지 100여 개 품목을 출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18일까지 ‘더클럽’ 온라인몰에서 대용량 식재료와 간편식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또 최근 온라인 배송 지연 사태에 대비해 20개 스페셜 전 점포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원하는 시간에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픽업 서비스’를 전개한다.

홈플러스 ‘더클럽’은 ‘한우삼합’ 재료를 저렴하게 내놨다.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농협 안심한우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키조개 관자슬라이스(200g/팩/국내산) 8990원, 장흥 핫 볶 표고버섯(600g/봉/7990원)은 행사카드 결제 시 6990원에 판매한다. 육아 지원을 위해 펌퍼스/밤보네이처 기저귀, 이유식, 유아 위생/수유용품, 어린이 구강용품 1+1 판매도 실시한다.

롯데마트는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의 유료회원제를 6월부터 폐지해 개방형으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트레이더스와 홈플러스 스페셜 등 경쟁사의 창고형 할인점이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만큼 문턱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창고형 할인점이라는 형태는 유지하고, 빅마켓이란 이름은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베이비붐 세대 “우리도 스마트 컨슈머”

3명 중 1명 온라인 쇼핑...TV보다 스마트폰 시청 시간 길어

‘20~40대는 온라인 쇼핑, 50대 이상은 오프라인 쇼핑’이라는 공식이 깨졌다.

12일 롯데멤버스 리서치플랫폼 라임(L-ime)에서 빅데이터와 스몰데이터를 연계해 발간한 ‘2020 트렌드픽(TREND PICK-CK)’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30.6%(응답자 총 3935명)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의 온라인 쇼핑 비중(35.0%)과 큰 차이가 없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 채널은 1위 오픈마켓, 2위 TV홈쇼핑, 3위 소셜커머스, 4위 대형마트 인터넷몰, 5위 온라인 종합몰순이었다. 온라인 쇼핑 채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최저가 비교’가 쉽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라임 설문 결과, 해당 연령대의 응답자 72.5%가 ‘어떤 일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관련 정보를 탐색한다’, 61.2%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활용한다’고 답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TV 외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종 하루 평균 스마트폰 영상 시청 시간(2.9시간)은 TV(2.8시간)보다 길었으며, 응답자 대부분(93.7%)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었다. 박미선 기자 only@

베이비붐 세대의 OTT 생활

(1955~1963년생 3935명 조사)

#누가 #아직도 #TV보니

기기별 주종 하루 평균 시청 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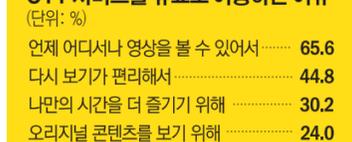
이용하는 OTT 서비스 (단위: %)



OTT 서비스 유료 이용 경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이유 (단위: %)



* OTT(Over The Top): 유선이나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동영상 시청하는 것



SPC삼립, 대빵 큰 ‘펑수 빵’ 5종 출시

SPC삼립이 EBS의 인기 크리에이터 ‘펑수’를 모델로 한 ‘펑수 빵’(사진) 5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펑수 빵’은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펑TV’의 펑수 유행어인 ‘대빵’을 콘셉트로 한 빅(big) 사이즈의 제품이다.

부드러운 우유시트에 담글만한 연유크림을 넣은 ‘러블리 우유롤’, 겹겹이 쌓아올린 페스트리와 설탕 시럽이 조화로운 ‘스위트 페스츄리’, 파베기 도넛에 초콜릿과 초코크런치를 올린 ‘엠텔엠텔 초코파베기’, 부드러운 식빵 안 고소한 땅콩크림을 듬



뽁 넣은 ‘터질듯한 땅콩미니샌드’, 피자소스에 소시지를 가득 토핑한 ‘하이!하이!피자빵’ 등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코로나 공포에... 장중 1800선도 무너져

지수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
外人 6거래일 연속 4.6兆 매도
코스피 시총 하루 새 50兆 증발

코로나19 공포에 글로벌 증시가 맥을 추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틀 연속 급락했다. 장중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빠지며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87%(73.94P) 하락한 1834.33으로 거래를 마쳤다. 2015년 8월 24일(1829.81) 이후 4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낙폭 기준으로는 전날 -85.45포인트, 하락률은 -4.19%를 기록한 이래 최대 하락이다.

또 코스닥 증가는 563.49(-5.39%,



코스피 지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충격에 4% 가까운 낙폭을 보이며 주저앉았다. 장중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73.94포인트(3.87%) 내린 1834.33을 가리키고 있다.

32.12P)로 지난해 8월 6일 551.50을 기록한 이후로 가장 낮았다.

이날 하루 동안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49조5444억 원, 코스닥시장은 11조

6303억 원이 증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967억 원을 순매도했다. 5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이 기간 4조5961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5361억 원, 기관은 2854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이 기간 4조3289억 원을 순매수했다. 사실상 외국인들이 내놓은 매물을 개인들이 받아간 모양새다.

특히 이날 장중 코스피가 5% 이상 폭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4분 37초에 선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5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사이드카 발동)된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가 커진 2011년 10월 4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거래소는 "코스피200선물(최근월물)이 기준가격인 전일종가 256.90포인트에서 243.90포인트로 13.00포인트(-5.06%)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돼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거래 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할 경우 발동되며, 발동 시점으로부터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증시 개장 이후 총 48회이며 2011년 10월 4일 오전 9시 6분이 마지막 유가증권시장의 사이드카 발동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증권가 "증시 예측 무의미... 바닥 가늠 어렵다"

코로나 확산세 주춤했던 지난주 지수 저점 찍고 반등 예상
폭락장 속 유가 하락 겹쳐... 목표·실제주가 2배 이상 차이

증시가 연일 급락하면서 증권가도 패닉에 빠졌다. 이전에는 없던 팬데믹 리스크로 향후 전망이 어렵다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12일 이날 하루 동안 외국인은 8967억 원을 쏟아내며 투매를 이어갔다. 장중에는 사이드카가 발동돼 9년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가 일시 정지되기도 했다. 5일 이후 일주일 새 코스피지수는 12.19% 급락했다.

코스피 하단이 잇따라 붕괴되면서 증권가도 비상 사태에 빠졌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확산되고 국제유가마저 출렁이면서 예측이 모두 빛나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던 지난 주까지만 해도 주요 리서치센터는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다. 당시 코스피 하단으로 △NH투자증권

2030포인트 △키움증권 2000포인트 △삼성증권 1950포인트 △IBK투자증권 1940포인트 △KB증권 1930포인트를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주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증권가는 전망 보고서 수정에 나섰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동반 급락, 국제유가 하락과 교역활동 후퇴 등의 매크로 환경 변화로 올해 코스피 평균지수를 1940포인트로 하향 수정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도 코스피 예상 밴드 하단을 1800포인트로 하향했다.

목표주가와 실제주가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전일 기준 2만2600원에 거래를 마친 위메이드의 목표주가(증권사 3곳 이상 추정치 평균)는 4만8400원으로 괴리율이

114.16%에 달한다. 대한해운(113.83%), 휠라홀딩스(106.65%), 코오롱인더(106.47%), 도이치모터스(104.33%), SK(102.14%), 현대그린푸드(102.11%), 두산(99.35%) 등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증권가에서는 증시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하방 지지선을 얘기해서 맞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며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이어지느냐 등의 상황으로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기술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데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갈지,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지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부양책, 연준(FOMC)의 유동성 정책 등에 따라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外人 10兆 물량, 개미들이 샀다

과매도 구간 판단 저가매수 나서

팬데믹 공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외국인 연일 패닉 셀링(투매)에 나서고 있다. 개인은 10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받아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12일까지 외국인은 10조3415억 원을 순매도, 개인은 13조463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일간 기준 역대 최대 순매도(1조3075억 원)를 기록한 날에도 개인은 1조2800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지탱하고 있다.

외국인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위험한 신흥국 주식을 처분하고, 금리 인하와 감세 등 경기부양책에 나선 미국과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코스피 매력에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개인은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석원 SK증권 센터장은 "글로벌 이머징마켓 펀드에서도 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데이 경우 자금 유출로 인한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국인 투자한 물량 대부분은 개인이 받았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 목록에는 삼성전자(-4561억 원), LG화학(-615억 원), 현대차(-448억 원), SK하이닉스(-446억 원), 삼성SDI(-376억 원), LG전자(-309억 원), LG생활건강(-193억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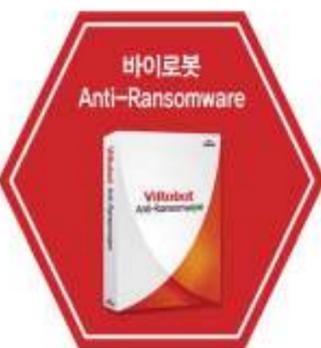
한편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2675억 원), LG화학(494억 원), 현대차(358억 원), 삼성전기(248억 원), LG전자(187억 원), SK하이닉스(140억 원), 삼성SDI(125억 원) 등이 차지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센터장은 "지수가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미국 정부의 인일한 대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기대했던 대규모 경제 지원정책이 나오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했다"고 분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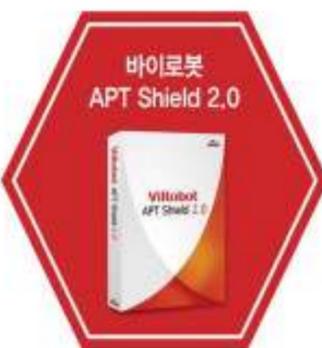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38 (여말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작년 흑자전환에 총자본 '플러스'

상장사 재무 분석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재무손익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2조8133	1조6477	1조6979	1조6288
영업이익	-793	-19	617	838
자본금	5303	5303	5303	4164
총자본	9176	5772	-7082	2450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완전 자본잠식에 서 벗어났다. 순이익도 흑자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의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41.14%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진중공업은 2018년 마이너스 자본으로 인한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채비율은 900%대로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총 자본이 플러스로 돌아왔고 부채 역시 기존 3조4418억 원에서 2조2252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감소하는 등 개선 중이다. 실적도 나아졌다. 한진중공업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1조6288억 원, 영업이익은 35.9% 증가한 838억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3062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회사는 앞서 2018년 1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부실에 따른 자본잠식을 공시했다. 당시 채권단인 산업은행(산은)은 잠식의 원인으로 필리핀 현지 금융조달에 대한 4억1000만 달러 규모의 보증채무를 꼽았고, 현지 은행들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 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은행들과 보증채무 해소 및 출자전환 등이 담긴 채

부채 2.2兆로 1兆 이상 줄어

자본잠식률 40% 초반까지 낮춰

무조정에 합의했고, 산은을 포함한 국내외 채권단이 한진중공업의 채무액 6874억 원을 출자전환했다.

이때 최대주주 지분 전량 소각을 포함한 86.3% 감자를 결정하면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과 채권단은 4월 자본금 전액잠식 해소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나아가 산은은 기존 2018년까지였던 한진중공업과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올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상태다.

일련의 과정을 거친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분기 자본잠식률이 52.63%까지 낮아졌고, 이후에도 조금씩 재무개선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최종 40%대 초반까지 낮추게 됐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내부거래 급감에 매출 28% '뚝'

증권그룹 일감돌보기

대림제지

삼보판지그룹 내 주력사 중 하나인 대림제지의 내부거래 비율이 최대 60%대에서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형제 경영에서 사촌 경영으로, 그리고 결별 수순을 밟아가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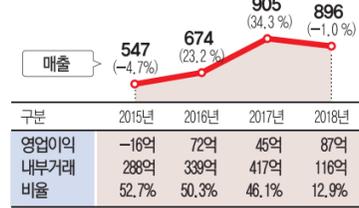
삼보판지그룹은 1973년 류종욱 회장과 동생 류중우 대림제지 회장이 함께 설립한 삼보판지를 모태로 한다. 골판지, 골판지 상자 제조와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삼보판지공업사로 설립됐다.

형제는 공동 경영으로 사세를 확장하며 그룹을 골판지 업계 빅4로 키웠다. 2000년대 초반 삼보판지 지분도 류 회장 37.3%, 류 부회장 22.9%로 나뉘어 가졌다. 이후 오너 2세들로 지분과 경영권이 이동하면서 형제 경영은 사촌 경영으로 변화했다.

형제 경영에서 사촌 경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던 2017년까지만 해도 삼보와 대림의 관계는 원활했다. 하지만 오너 2세로

대림제지 별도실적 및 내부거래 추이

(단위 : 원, 개별기준) ※()는 매출증가율



사촌경영서 독자경영 수순 밟아 60%대 내부거래 1년 새 13%로 작년 매출 1059억 영업익 40% ↓

의 경영 승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각자 회사를 이끄는 사촌형제간 경영 행보에도 변화의 계기를 맞는다.

대림제지는 2017년 관계사 삼보판지가 보유했던 동진판지 지분과 삼보판지 파주공장을 인수했다. 대신 회사가 갖고 있던 고려제지 지분 중 25%가량을 삼보판지에 인수 대가로 넘겼다. 그 결과 동진판지는 대림제지의 100% 자회사가 됐고, 삼보판지가 갖고 있던 고려제지 지분은 85.8%로 늘었다.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인 대림제지가 판지 생산업체 동진판지를 수직계열화하면서 내부거래 비율에도 일대 변화가 생겼다. 2017년까지만 해도 대림제지의 최대 매출처는 삼보판지였다. 그 외 동진과 한청, 삼화판지 등 다른 그룹 내 관계사들과의 거래를 포함, 내부거래 비율은 최근 10년 새 50~60%대를 오갔다. 그러다 1년 뒤에는 내부거래 비율이 12.9%로 급감했다. 삼보판지는 물론 여타 다른 관계사와의 내부거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탓이다. 대신 동진판지와 거래 규모는 전년보다 28% 이상 증가했다.

한편 대림제지는 지난해 전년보다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매출은 1556억 원으로 전년보다 6.2% 늘었다고 공시했으나 1059억 원으로 정정했다. 전년보다 27.7%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 역시 105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감소했고 순이익은 4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줄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네패스 '패키징' 수요 대응 투자 확대

네패스가 지난해 두 번의 물적분할 이후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분할 회사에 모두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규모의 시설 투자를 단행했다. 다만 대규모 차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업황 위축은 부담 요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패스는 전일 팬아웃(FO) 패키징 사업 부문을 분할해 만든 네패스 라웨이가 4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KDB중소중견메자닌 사모투자합자회사, IBK-BNW기술금융 2018사모투자 합자회사 등이다. 조달한 자금은 시설 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회사는 지난해 테스트 부문 사업을 분할할 때도 같은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4월 테스트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네패스 아크를 설립한 뒤 하나금융투자와 BNW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600억 원 규모의 자

금을 유치했다. 이후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 작년 하반기 생산능력(CAPA)을 대폭 늘렸다.

차입금과 보유 현금을 통한 대규모 투자도 지난해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말 네패스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CAPA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1553억 원을 신규 설비 등에 투자했다. 자기자본의 110%가 넘어가는 막대한 규모로, 회사 보유 자금과 금융 차입이 섞인 형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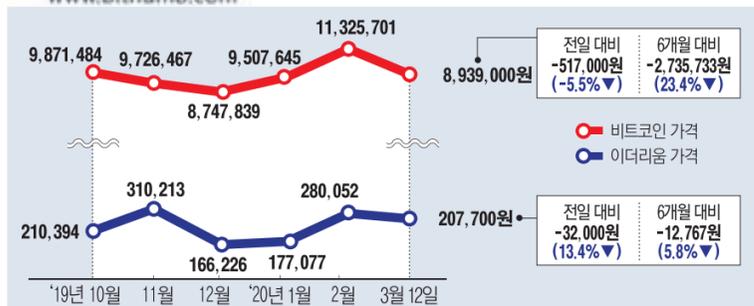
투자 소식을 밝힌 직후 미국 데카 테크놀로지(Deca Technologies)의 팬아웃 기술 확보를 위해 필리핀 현지 공장을 390억 원에 취득했다. 데카 테크놀로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2차 벤더사다.

공격적인 투자 행보는 고부가가치 패키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 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우리 기자 we1228@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20년 3월 12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93,000	-30,200 (9.3%▼)	모네로	58,200	-7,700 (11.7%▼)
리플	227	-25 (9.9%▼)	비트코인골드	9,695	-1,595 (14.1%▼)
라이트코인	52,100	-7,150 (12.1%▼)	이더리움 클래식	7,355	-735 (9.1%▼)
대시	76,750	-11,900 (13.4%▼)	퀀텀	2,035	-298 (12.8%▼)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가계부 관리, 자동분계, 자동입계, 자동입금,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

회사 밖에서 금원 업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든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업을 위한 ERP

더존 iCUBE ERP, 더존 iCUBE Cloud ERP, 더존 iCUBE SaaS ERP

더존 iCUBE G20 ERP, 더존 iCUBE G20 Cloud ERP, 더존 iCUBE SaaS ERP

기업을 위한 ERP

- 회계관리, 인사관리, 영업관리, 무역관리, 구매관리
- 생산관리, 외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공사현장관리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회계관리, 인사관리
- 경영정보관리, 영업관리, 구매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맹모 잡아라”... 건설사 ‘명문 학원’ 모시기 사활

신도시 아파트 교육인프라 부족에
대치동 영어학원 분원 협약
단지 내 학원 수강료 절반 지원 등
건설사 ‘교육특화 단지’로 홍보
학원가로 주목받으면 집값 올라
정비사업 수주전서 과장 공약도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명문 학원 모시기’에 나섰다. 제대로 된 학원 조성은 입주 주민 마음을 사로잡는 핵심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학원비 절반은 건설사가 내드립니다” = 태영건설은 2016년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에코시티 데시앙 2차 7블록’을 분양하면서 ‘교육특화 단지’를 표방했다. 단지 안에 교육시설인 ‘데시앙 에듀센터’를 조성해 입주주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에코시티 데시앙 2차 7블록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데시앙 에듀센터도 문을

열었다. 유명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인 페르마학원과 YBM ECC 학원이 입주했다. 이들 학원은 단지 입주인 자녀에겐 등록 후 2년 동안 수강료 절반을 깎아주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태영건설에서 부담하고 있다.

반도건설도 2018년 입주를 시작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10차’ 입주민에게 수강료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대치 학원가 동탄 캠퍼스’를 내세우며 대치누리학원을 유치했다. 이 단지에서도 감면된 학원비 일부를 반도건설에서 지원한다.

건설사가 임대 수익을 양보하면서까지 학원 모시기에 나선 것은 입주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다. 에코시티 데시앙 2차 7블록과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10차 모두 신도시에 자리잡고 있다. 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 자녀를 둔 입주자가 많지만 교육 인프라 구축은 느리다. 특히 에코시티 같은 지방 신도시에선 사교육 서비스가 더욱 부족하다. 건설사가 나서서 학원가를 조성하면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고 인근 경쟁단지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

학원 업계에서도 건설사와 제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종로엠스쿨은 사업 확장 전략 중 하나로 교육 특화아파트에 주목하고 건설사 등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이 학원은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모아엘가’ 등 20여 개 단지에 분원을 냈다. 입주자에게 수강료를 감면해주는 대신 시행사 등으로부터 나머지 수강료나 입주비 등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학원가 품은 아파트 몸값 ‘경중’ = 최근 연 사교육 서비스와 신축 아파트값 사이 선순환까지 주목받고 있다. 강남 유명 학

원의 분원이 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일대가 대표적이다. 마포구에선 아현·염리동 등 신축 아파트 단지 주위로 이강학원·대치상학원 등 유명 학원들이 분원을 내고 있다.

학원가가 주목받으면서 집값 상승세도 탄력을 받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대입정시 확대 등 교육정책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학원가 근처 집값은 더욱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학원가가 들어서기 시작한 2018년 초만 해도 아현동과 염리동 일대 아파트값은 각각 3.3㎡당 평균 2907만 원, 2145만 원이었지만 지난달엔 4326만 원, 3511만 원까지 올랐다.

◇학원가 유치 ‘공약(空約) 논란도’ = 이 같은 점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도 학원가 유치가 단골 공약이 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 뛰어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은 일제히 학원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3사 모두 이를 위해 대치동 학원 분원과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과 협약 등을 맺었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한남3구역 조합원 사이에선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한참 걸리겠지만 향후 집값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다만 지난해 말 한남3구역 조합이 시공사 재입찰을 결정하면서 3사는 학원가 유치 공약을 유지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3사 공약에 등장했던 학원들은 1~2곳을 빼곤 자신들은 분원을 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두 개 회사가 한남동 입점을 약속했던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관계자는 “우리는 전혀 협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우리 회사 이름이 등장해서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아파트를 고를 때 자녀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학원가 유치는 분양 등에 분명 도움이 된다”면서도 “얼마나 지속해서 교육시설을 유지·운영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서주세요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칩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공포에 ‘油價전쟁’까지 해외수주 300억 달러 목표 ‘비상’

산유국 배럴당 50달러 돼야 발주
예정 프로젝트 연기 가능성 커져

해외건설 수주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가 전쟁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석유 소비 위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유가 전쟁 쇼크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공사 수주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초까지만 해도 건설사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잇따라 손에 넣으면서 올해 해외수주액이 목표치인 3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인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석유 소비가 감소한 게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최근엔 유럽과

미국 등에서 나타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수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인 석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석유 추가 감산을 논의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다. 추가 감산 합의 실패가 유가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관련 프로젝트를 발주하려면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유가 전쟁으로 국제유가는 당분간 배럴당 20~4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결국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300억 달러 수주 목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증권업계가 올해 발주시장에 나올 것으로 점쳐던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발 프로젝트는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봄분양 ‘초양극화’ 수도권 ‘인산인해’·지방 ‘썰렁’ 코로나 사태 심화 시장 불투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택 분양시장 양극화와 국지화가 더 극심해지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진행한 ‘포레나 부산 덕천’ 아파트는 169가구 모집에 1만 4920명이 몰리며 평균 8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8년 1월 이래 부산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앞서 이달 초 대구 중구에서 나온 청라 힐스자이도 1순위 청약에서 5만5710명이 몰려 평균 141.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라 힐스자이의 최고 당첨 가점은 79점(만점 84점)에 달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나온 과천 제이드 자이(193.6대 1)와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145.7대 1), 하남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104대 1)도 청

약자가 쇠도하긴 마찬가지였다. 인천 검단신도시 대성베르힐(2.9대 1)은 무난한 흥행 성적표를 내놨다. 2·20 부동산 대책 규제가 적용되는 첫 분양단지였던 수원 쌍용더플래티넘 오목천역 역시 16.6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 마감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청약 경쟁률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에서 나온 서면 스위트엠 골드에비뉴는 전용 59㎡A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주택형 모두 입주자를 채우지 못했다.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분양 실적은 36.7%였다. 2월 초 잡혔던 분양 예정 물량 1만3789가구 중 5064가구만 분양이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에 3월 분양 예정 물량(2만5300여 가구)에서 얼마나 많은 분양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상 3~5월은 봄 분양 성수기지만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대목에도 불구하고 흥행은 물론 분양 개시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40억대 횡령·배임’ 탐안탐스 대표 집유 확정

대법 “가맹점에 통행세 등 유죄... 원심 판단 옳다”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사진) 탐안탐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범행 시점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사돈으로 낸 혐의를 받았다.

상품권 명의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에게 사건 해결을 도와달라며 3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배임수재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임원 허위급여 지급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의 회사돈 횡령, 물품 공급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유죄로 본 위증교사 등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유지했다. 국회의원 비서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작량 감경 부분의 벌리 오해를 인정해 벌금 액수는 각각 18억 원, 9억 원으로 줄였다. 2심은 정상 잠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작량감경’을 1심이 징역형에 대해서만 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마스크 검수 꼼꼼하게... 12일 인천 중구 현대로지스앤팩 내 한진물류창고에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한국에 기부한 마스크 100만장을 전국에 배송하기 위해 검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6년간 LCD 빼돌려 130억 ‘꿀꺽’ LGD 전 직원 상고심서 징역 7년

절도·범죄수익 은닉 등 원심 확정

130억 원 상당의 LCD 모듈을 빼돌려 판매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절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디스플레이 영업팀 직원 A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3회에 걸쳐 LCD 모듈 130억 원어치를 빼돌려 판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LG디스플레이, LG전자에서 부품이나 재고 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LG상사에서 물품의 배송 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LG상사 담당자에게 임의로 반품 요청을 하고 반품 대금은 미수채권으로 관리하도록 한 뒤 LCD 모듈을 LG디스플레이

창고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선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6년 동안 지속해서 LG상사 소유 물건을 훔쳐 84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관련 임직원 2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죄수익 일부는 유혹비 등으로 탕진하고 나머지는 은닉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해외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에 대해서는 “LG상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LG디스플레이가 LCD 모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전광훈 한기총 회장 구속적부심 3번째 기각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 등을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별도의 심문 없이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2의 3항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 목사는 두 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전 목사가 검찰 송치 전날인 이달 3일 청구한 두 번째 구속적부심 역시 이틀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할 호소하는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치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檢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구속수사”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방침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경우에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SNS 등에 정부가 총선 연기를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한다고 퍼뜨리는 행위 △언론사 사이트 기사를 사칭하는 행위 △특정 종교집단

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악의적 유언비어 등을 허위사실 유포의 사례로 제시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앞서 대검은 1월 말 일선 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악의성·조직성 등 구속·구공판 기준을 내려보낸 바 있다.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재미

공감

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잼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잼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잼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서울시장〉

박원순 “구로 콜센터 일대 ‘감염병 특별지원구역’ 지정”

코로나19 정례브리핑

“구로 콜센터와 인근 지역을 감염 특별 지원구역으로 지정한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12일 유튜브를 진행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리아빌딩과 인근 지역을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서정협 행정1부시장을 감염병 특별지원 구역 통제관으로 지명,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콜센터 관련 확진자 102명 통신기록 확인 등 방문객 조사 밀접접촉 영업 장소 특별 점검”

가 총 219명으로 전날보다 14명 늘었다”며 “구로 콜센터 관련 서울시 확진자는 71명, 경기도 14명, 인천광역시 17명을 포함하면 확진자는 102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시장은 “경찰과 협조해 2월 28일부터 통신 접속 기록 등을 확인, 빌딩 방문객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이 집단감염 사



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느냐 아니냐를 판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인근 지역에 인적·물 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건물 13~19층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 186명에 대해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오피스텔 주민은 전원 음성이지만 아직 감염 잠복기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율적이기는 하지만 자기격리를

강력히 권고했고, 전체를 폐쇄하는 그런 노력과 다름없는 정도의 강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간 내에 증상 있는 시민에게 조사를 받게 하고, 확진자를 가려내, 그들이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확진자 동선을 파악해서 그 접촉자를 자기격리하고 이들을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시장은 PC방, 코인노래방, 클럽, 콜라텍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상황에 따라 폐쇄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동대문구의 한 PC방을 이용한 4명이 코로나 19 확진을 판정받았다”며 “앞서 경남에서

는 코인노래방에서 확진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밀접접촉 이뤄지는 영업장소는 특별한 대책을 취하고자 한다”며 “방역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용객 마스크 착용, 한자리 건너 앉기 등 위생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로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대중교통 관리 방안과 관련해 “지하철 회차 때마다 방역소독 했다”며 “시차 출퇴근제 확산을 통해 가능하면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우려하시는 만큼 좀 더 강력한 방역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경진 기자 skj78@



통장이 마스크 전달하는 노원구

12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통장이 주민에게 마스크를 전달한 뒤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구민 1인당 2장씩 총 110만장을 무료 배부한다. 연합뉴스

강동구, 임신부 마스크 4000장 지원

서울 강동구는 최근 임신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증폭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4000장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든 임신부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마스크 지원은 강동구 거주 임신부가 대상이며 11일부터 2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신분

증과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마스크 2장을 받을 수 있다.

임신부가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가족의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강동구 관계자는 “강동구 관내 기업인 웰킵스의 마스크 기부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마스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460곳 확충

5년간 예산 4037억 투입

서울시가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5년간 생활체육시설을 대거 확충한다.

서울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신규 생활체육시설 460곳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시비 1595억 원, 국비 1092억 원, 자치구비 1350억 원 등 5년간 4037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실내체육시설 85곳을 새로 만든다. 실내다목적체육관 35곳을 비롯해 공공·민간의 유휴공간을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우리동네작은체육관 50곳도 추가로 조성한다.

수영장·헬스장 등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구성되는 실내다목적체육관은 중앙정부,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확충한다. 목표인 35곳 중 3곳(금천구 3월·구로구 4월·서대문구 9월)은 준공을 앞두고 있고 5개 체육관(성동·도봉·노원·강동·구로구)이 내년 작

공한다.

1000㎡ 내외의 유휴부지 및 공간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우리동네작은체육관은 리모델링 후 다양한 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에게 제공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동주민센터·치안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대형마트 등 민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서울시는 운동장, 체육시설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최대 1억 원 이내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매년 50곳 이상, 총 250곳의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가 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체육시설을 신규 건립할 경우 건축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교육청·학교기관과 협력해 3월 현재 85곳인 개방형 학교 체육관을 15곳 추가 확충해 100개로 늘릴 방침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동작, 생활 폐기물 10% 감량

서울 동작구가 생활 폐기물 10% 감량 대책을 추진한다.

12일 동작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른 생활 폐기물 감량을 위해 일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등 3개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먼저 배출 폐기물 300kg/일 이상 사업장 15개소(중앙대, 보라매병원, 현충원 등)에 대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공공처리에서 자체 처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동작구는 “지난해까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구에서 수거·운반했다”면서 “올해부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해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반 폐기물을 줄여 처리비용 3억여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는 하반기부터 매일 어린이, 어르신,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주거 유형별 찾아가는 폐기물 분리배출 설명회도 실시한다.

각 동 방문 간호사 및 자원순환 리더 등 30여 명이 어린이집,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 △감량 가이드라인 교육 △감량 우수사례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1:1 쓰레기 감량 상담 컨설팅을 지원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서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물론 상생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수롭지 않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수롭지 않고 실권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매뉴얼이자, 후속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직에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성장을 위한 책읽기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년 시음 / 2019년 / 국문판권 / 214,800원

“후반생은 나만을 위해 꽃을 피워보세요”

‘벌거벗을 용기’ 펴낸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persona). 사회적 위치나 역할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일생에서, 또 일생에서 여러 페르소나를 갖게 된다. 겨울 옷 하나로 사계절을 보낼 수 없듯, 다양한 가면으로 유연하게 탈바꿈하며 사는 것이 곧 삶에 적응하는 일이다. 김경록(金敬祿·58)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특히 퇴직을 앞둔 중장년이 사회적 페르소나를 벗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꽃과 잎을 모두 떨구고 벌거벗은 겨울 나목(裸木)의 단단한 기세처럼, 자신의 민낯을 마주할 용기, 즉 노후의 나력(裸力, 벌거벗을 힘)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그다.

은퇴 전후 중장년 위한 자기계발서 출간 성찰·관계·자산·일·건강 등 주제 담아 ‘자신의 민낯’ 마주할 용기 키워나가야

경제학자이자 은퇴 연구 전문가로 이름을 알려온 김경록 소장은 최근 중장년을 위한 자기계발서 ‘벌거벗을 용기’를 펴냈다. 재테크나 투자 등 그의 전공 분야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제목이다. 내용 역시 ‘성찰, 관계, 자산, 업(일), 건강’ 순으로, 돈 문제에 한한 이야기가 아닌 보다 폭넓은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 김 소장은 스스로 “은퇴에 대한 생각 전부를 담은 책”이라 일컬으며, 은퇴 전후의 중장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랐다.

“생태적페리는 소설 ‘인간의 대지’에서 삶의 의미를 역할과 책임이라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책임이 줄어들니 그러한 삶의 의미도 점점 퇴색되어가죠. 명함, 직위 등 자신이 갖고 있던 비본질적인 것, 즉 사회적 페르소나를 내려놓는 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흔히 은퇴한 사람들에게 ‘물 빠는 데 3년 걸린다’는 말을 해요. 이는 페르소나를 바꾸는 데 3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아요.”

혹자는 여러 가면을 둔 이들을 기회주의자라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 소장은 오히려 하나의 페르소나만 갖고 사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내다봤다. 여러 가면을 잘 바꿔 쓰는 게 노후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은퇴 후 삶에 적응하기도 수월하다고.

“어떤 가면도 영원히 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가면으로 바꿔 쓰거나 가면 없는 자신으로 살아가야 하죠. 사회적 페르소나의 경우, 너무 오래 써왔기에 쉬이 벗지 못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인의 회사 고문으로 명함을 만드는 등 과거의 흔적을 부여잡기도 하죠. 애써 페르소나를 벗었더라도 자신의 민낯에 당황하곤 합니다. 나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후반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성찰이 중요해요. 때문에 ‘성찰’을 책 서두에서 다뤘죠. 또 젊어서는 부모나 직장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나를 제어할 무언가가 없잖아요.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소위 ‘폭주노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성찰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죠.”

점의 인생관으로 그려낸 인생 그림

자신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폭발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이를 이른바 ‘폭주노인’이라 말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지난날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반대로 찬란했던 한때에 얽매어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좋은 나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지나치게 연결 짓다 보면 결국 노후의 만족감은 떨어지기 마련. 이에 김 소장은 ‘점의 인생관’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길 조언했다.

“나이 들을 선으로 보는 인생관이 있고, 점의 집합으로 보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가령 연필을 떼지 않고 선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죠.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한 번 잘못된 선을 그어버리면 원하는 그림을 얻기 힘들어요. 반면 점을 찍어 그릴 경우, 실수한 점 하나 때문에 그림을 망치지 않습니다. 찍힌 점들을 어떤 순서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니까요. 내가 찍은 점들의 집합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 의미를 깨닫거나, 관점에 따라 다른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죠. 덕분에 과거보다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떤

선택에 대한 부담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한 ‘점’은 인생에 있어 과거의 경험과 사건, 만났던 사람과의 관계, 나의 생각 등을 나타낸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잘못된 점을 찍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들이 쌓여갈수록 알게 된다. 실수처럼 보였던 점이 때론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해준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오리온자리’, ‘전갈자리’ 등을 찾곤 하죠. 근데 그건 인간이 붙인 이름이지, 각각의 별이 그런 뜻으로 존재했던 건 아니잖아요. 인생에 찍힌 무수한 점들 역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겠죠. 물론 그 점들이 완성하는 최종 그림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이 돼야 볼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 과거에 너무 얽매이거나 미래의 일을 두려워 말고, 새로운 제2 인생의 점을 과감히 콕콕 찍어나갔으면 해요.”

다시 태어나 진짜 삶을 꽃피우다

물론 과감히 점을 찍어가는 과정에서도 주의할 부분은 있다. 김 소장은 책에서 ‘인생 후반 5대 리스크’로 성인 자녀, 금융 사기, 은퇴 창업, 중대 질병, 황혼 이혼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인생을 축구 경기로 묘사하며, 이러한 리스크가 닥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축구 경기에서 골(goal)이 가장 많이 들어간 시간대는 ‘후반 마지막 15분’이었습니다. 전반에는 열심히 뛰어나며 부족한 실력도 활동량으로 메울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가면 체력이 바닥나고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후반전이 끝나갈 때쯤 나오는 골이 무서운 겁니다. 만화가 어렵기 때문이죠. 인생 후반에서도 앞서 말한 5대 리스크로 예상치 않게 골을 먹기도 합니다. 이 경우엔 거의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해요. 결국 수비를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점’ 찍듯 그리는 인생관, 실패 부담 적어 은퇴 후 삶은 변성 아닌 ‘만개’에 무게 두 번째 인생, 도전하길 두려워 말아야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에 우울해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리스크는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일 뿐, 절대적인 시간이 적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김 소장은 노후 삶의 목표를 ‘prosper’ (번성하다)가 아닌 ‘flourish’ (만개하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생 전반에는 대개 ‘prosper’를 목표로 하죠. 돈도 벌고 재산도 늘리며 사회적으로 번성하기 위해 사니까요. 그러나 인생 후반에는 지난날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을 꽃피우겠다는 ‘flourish’의 관점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노후에 연극배우를 꿈꾼다면 그건 물질적으로 번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잠재되어 있는 나의 달란트(재능)를 만개시켜 보겠다는 다짐인 셈이죠. 종종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수명이 길어진 덕분에 우리는 마치 두 번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가족을 위해 살았던 전반생, 그리고 오롯이 나만을 위해 사는 후반생. 이 후반의 삶이 더 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

다시 태어난 인생이라 여기시고 무엇에든 도전하시며 만개한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글/이지혜 기자 jyelee@
사진/오병돈 프리랜서 obdlife@gmail.com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국민연금의 연기 수령, 임의 가입, 추후납입제도를 활용하고 중신연금이나 주택연금의 수령 시기를 적절히 늦추면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며 “나의 수명과 돈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기존 연금제도를 잘 활용하는 데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집엔 어떤 스타일의 마루가 어울릴까요?

마루는 우드패턴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SB마루를 만나보세요.
우드패턴은 물론 대리석 패턴, 헤링본 시공도 가능하며,
에스비 강, 에스비 엠보까지 다양한 마루로 인테리어 스타일을 빛나게 합니다.

실용성에 스타일까지 갖춘 강마루 - 한솔 SB마루



한솔 sb마루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 마루
대리석 / 우드 / 헤링본 / 에스비 강 /
에스비 엠보



습기에 강한 실용마루
장시간 습기에 노출시에도 치수 변화 및
팽창에 안정적



친환경 소재의 건강한 마루
아토피인증, 항곰팡이 인증 획득

※제품별 친환경 SB 전용 접착제 사용(황토, 프리미엄)

“환경·보건 위험…바이오·ESG 투자 늘려라”

(환경·사회책임·기업지배구조)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이 말하는 ‘코로나 이후’

자본시장 차원서도 벤처투자 늘려 위험 대응 지원해야 美 감염 확산 투자심리 영향… 변동성 크게 확대될 것

“자본시장이 더 큰 역할(투자 확대)을 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전문가들이 환경 문제와 보건 위험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현주(사진)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바이오산업과 ESG(환경·사회책임·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코로나19’와 같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미와 유럽의 금융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투자은행과 보험 등 기관들도 저마다 여신관리에 환경 리스크와 환경경영 성과를 반영하는 추세다. 클린테크(Clean Tech)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전체 글로벌 인수·합병(M&A) 거래량 가운데 클린테크 분야 M&A 비율이 늘어나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강 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만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확률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에서 발생한 일차적 영향은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확대에 국내의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라며 “최근 코스피나 원·달러 환율은 국내 감염자 증가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등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실물경제 상황을 반영한 각국의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이전이지만,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변동성지수(VIX)가 유럽재정위기 당시 수준까지 치솟는 등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적 관점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는 글로벌 위험회피 확대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미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2018년 이후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과정에서 주요국 중 사실상 유일한 성장엔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내 감염 확산



이 뚜렷해질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 “이달 중 발표될 한국과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애초 예상을 밑도는 한편 국내 감염 확산이 적절히 제어되지 못해 내수 부진 및 생산 차질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할 경우, 글로벌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하는 가운데 국내 주식이나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장기적 피해로는 기업공개(IPO) 및 인수합병(M&A)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들었다. 강 실장은 “기업의 기대이익 감소 및 위험회피에 따른 할인율 상승으로 기업 입장에서 원하는 가치산정을 받기 어려워지는 데다, 감염 우려로 IPO나 M&A

를 위해 필요한 회의나 기업설명회(IR)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힘들며 투자자 유치도 쉽지 않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실적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확률이 커지면서 회사채 시장이나 은행 대출의 부실화 우려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크게 입은 업종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확대에 글로벌 보건위험 및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 프로세스를 한층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본시장 차원에서 바이오업계에 대한 벤처투자나,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ESG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환경 및 보건체제 위험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에서 오랫동안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해왔으나 막연하게 생각했던 환경 및 보건체제 위험이 더욱 현실화된 점을 고려하면, 민간 기업에서도 이러한 비전통적 위험요인이 업황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분석과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에듀테크기업 클래스팅 조현구 대표 다보스포럼 ‘영 글로벌 리더’에 선정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클래스팅은 조현구(사진) 클래스팅 대표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의 차세대 지도자 ‘2020 영 글로벌 리더’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은 매해 전 세계에서 40세 이하의 인재를 추천받고 전문 분야에서의 성취도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차세대 지도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2000명 이상의 후보자 중 114명이 뽑혔으며 뉴질랜드 최초 난민 출신 국회의원 플리스 가라만, 핀란드 최연소 총리 산나 마린, 사오미 국제사업 대표 주사오즈 등이 포함됐다.

조 대표는 올해 유일한 한국인 선정자이며, 국내 교육 분야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2012년 교사로 재직 중이던 조 대표는 교육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학교와 가정의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용 SNS를 개발해 배포했다. 이후 학교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에듀테크 스타트업 클래스팅을 창업, 학교 플랫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앞서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된 한국인에는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축구 선수 박지성 등이 있다. 이재훈 기자 yes@

전 세계에 ‘미투 운동’ 촉발시킨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와인스틴 뉴욕1심법원 징역 23년형 선고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세계적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했던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67·사진)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됐다.



뉴욕 맨해튼 소재 1심 법원은 11일(현지시간)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와인스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29년형보다는 낮지만 와인스틴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는 평가다.

앞서 배심원들은 지난달 와인스틴에 대해 1급 범죄적 성폭행과 3급 강간 등 2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종신형이 가능한 ‘약탈적 성폭행(Predatory sexual assault)’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날 공판에서 제임스 버크 판사가 1급 범죄적 성폭행 혐의로 20년형을, 3급 강간 혐의로 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버크 판사는 “이번이 첫 번째 판결이지만 첫 번째 범죄는 아니다”며 “판결은 와인스틴이 이번 재판과 관련된 사건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주행보조기를 잡고 법원에 출석한 와인스틴은 “혼란을 겪어야 했던 모든 여성에게 커다란 후회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을 과거 공산주의자에 대한 취급에 빗대면서 “남성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박탈했다”고 비난했다. 와인스틴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맨해튼 리커버아일랜드의 수감 시설에서 나와 뉴욕에서 북쪽으로 약 105km 떨어진 피쉬킬교정시설로 이감된다. 배준호 기자 baehj94@

호암이 쓴 ‘인재제일’ 케이옥션 경매에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경영철학을 담은 글씨 ‘인재제일(人材第一)’이 미술품 전문 경매사 케이옥션의 3월 경매에 나왔다. 25일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진행될 경매 호암의 ‘인재제일’은 추정가 2000만~4000만 원에 출품됐다. 호암 글씨 중 ‘인재제일’이 경매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경매 프리뷰는 1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美 배우 톰 행크스 부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 인스타그램에 글 올려 ‘감기 걸린 것처럼 피곤’

톰 행크스와 그의 아내 리타 윌슨(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톰 행크스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와 부인 리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는 감기에 걸린 것처럼 피곤했고, 몸이 아팠다. 리타는 오한 증상이 있었다. 열도 약간 있고”라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에 머물고 있는 톰 행크스 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후 상황을 알리겠다고 했다.

톰 행크스는 국내 영화 애호가들에게 유



명한 배우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캐스트 어웨이’, ‘캐치미 이프 유 캔’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해 큰 성공을 거뒀다. 1988년 배우 리타 윌슨과 결혼했고,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BAT코리아, 대구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구호물품 키트 전달

브리티쉬아메리칸토포코리아(이하 BAT코리아)가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



복지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위기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위생용품과 생필품 구입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BAT코리아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전남 지역의 미혼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 가정에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긴급 구호물품 키트(사진)를 제공한다. 구호물품 키트에는 마스크와 체온계, 손소독제, 손소독 물티슈 등 감염예방용품과 간편식이 담겼다.

김의성 BAT코리아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 지원을 결정했다”며, “BAT코리아는 대한민국 기업시민으로서 국가 위기 극복과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희 기자 yhh1209@

우즈, 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 PGA 통산 82승…찬성표 75%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 심사위원회는 우즈가 위원 투표에서 75% 이상 찬성표를 얻어 내년 입회가 확정됐다고 12일(한국시간) 밝혔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이 모나한 커미셔너는 이 소식을 전화로 우즈에게 알렸다. 우즈는 “가족, 친구, 팬들의 성원 덕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데 따른 성과”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PGA투어 최다승 타이 기록인 통산 82승에 마스터스 제패로 메이저대회 15승 고지에 오른 우즈는 지난해 입회 자격이 만 50세에서 만 45세로 낮춰진 덕에 세계 명예의 전당에 조기 입회하게 됐다. 원래 40세였던 입회 자격은 2016년 50세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부터 45세로 낮춰졌다.

필 미켈슨, 비제이 싱, 에니 엘스 등은 50세로 높아지기 전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왔다. 명예의 전당은 조니 파렐, 파드리그 해링턴, 톰 와이어스코프, 도티 페퍼, 그리고 전 PGA투어 커미셔너 톰 핀첨 등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홍석동 기자 hong@

부음

▲문태준(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전 보건사회부장관) 씨 별세 = 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3일 오전 11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2227-7500

▲조복달 씨 별세, 안현호(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단장) 씨 모친상 = 11일, 대구 수성오양병원 VIP실, 발인 13일 오전 10시, 053-766-4444(조문 사양)

▲홍승국 씨 별세, 홍수경(서울시청 서울역사박물관)·수진(KBS 남북교류협력부 기자) 씨 부친상 =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3일

오후 1시, 02-3410-3151

▲최정환 씨 별세, 김동진(전 서울 동부병원 원장)·동순 씨 모친상, 유춘석(주풍사회장) 씨 장모상, 김경희 씨 시모상, 김태석(금융감독원 선임검사) 씨 조모상 = 1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13일 오후 1시 30분, 02-3410-6905

▲이동주 씨 별세, 권석필(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씨 장모상 = 12일, 경북 안동시 용상동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054-820-1494

▲이준호 씨 별세, 윤배선(전 삼익가구 씨름단장) 씨 부인상, 윤수정·수영·지원(아시아나항공 부사부장) 씨 모친상, 손호균(광성아메리카법인장)·유정우(전한경

텐아시아 대표) 씨 장모상 = 12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1호, 발인 14일 오전 6시 30분, 02-2258-5940

▲최창우 씨 별세, 최송이 씨 부친상, 신현승(일간투데이 대표이사) 씨 장인상 = 12일, 서울직접사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4일 오전 11시, 02-2002-8444

▲정병태 씨 별세, 정주영(통일감정법인감정평가사)·영순·영미·수영(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장) 씨 부친상, 강정순 씨 시부상, 최원철(예준물류 대표)·유재용(한국중기 대표)·이성열(힘스 부장) 씨 장인상 = 12일, 충북 영동병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 043-743-4499.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정무실장 정기남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금융혁신과 이한샘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전 주핀란드 대사

민주당 주류는 샌더스를 과격한 사회주의자라고 하지만 미국과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은 샌더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것은 없고 미국 예외주의도 종말을 고했다면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나타난 샌더스 현상은 일회성이나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갈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슈퍼 화요일 II' (3월 10일)를 지나면서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세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반에 패색이 짙었던 바이든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흑인 투표자들로부터 몰표를 받고 중도를 지향하던 경쟁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바이든이 처음부터 강한 후보는 아니었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예선에서 내리 3위 이하로 밀리면서 패색이 짙었다. 바이든이 회생의 전기를 마련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그 후 예선이 치러진 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바이든 지지 투표자들이 투표가 있기 며칠 전에 마음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 두각을 못 나타내다가 예선이 진행되면서 치고 올라간 후보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들이 그랬다. 바이든은 이번 후보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잘 알려진 후보였다. 그런데도 많은 투표자들이 처음부터 그를 지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와 사회주의

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예선에 참가하는 투표자들은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데 적합한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네바다 경선 이후 패색이 짙던 바이든이 트럼프를 가장 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진다.

이번 예선에서 바이든은 흑인 투표자들로부터 몰표를 받고 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같이 흑인 투표자 비율이 높은 주에서는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흑인 투표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민주당 내부 경선이기 때문이다. 본선에 가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인종 구성을 보면 흑인은 11% 정도로 13%인 히스패닉보다도 적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하필 바이든의 아들 헨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받았다는 특혜 시비가 그 시발점이다. 바이든에게는 언제라도 폭탄이 될 수 있다. 정책면에서도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 오바마 시대를 재현해 보겠다 정도로 느껴진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었다. 그래서 갑작스런 바이든 돌풍의 진원지가 민주당 주류의 샌더스에 대한 공포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장점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인다. 국민 통합, 국가위기관리 능력 면에서도 샌더스에 앞선다. 반면 샌더스는 건강보험, 기후변화, 교육 문제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그런 성품과 관련 있어 보인다. 민주당 주류는 샌더스가 내세운 정책들이 너무 좌파적이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미래 세대들은 샌더스가 부르짖는 전 국민 의료보험(care for all), 대학 학비 무료 등에 열광하고 있다.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라는 말이 있다. 1830년대에 나온 말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구세계(유럽)에서 통용되는 법칙

들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곳이라는 말일 것이다. 그 특별함의 비결은 자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 같은 것일 게다. 정치에는 의례 좌우가 있으나 유독 미국에서는 '좌'가 약한 것도 이 예외주의와 관련 있어 보인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부에 손을 내밀거나 기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은 비싼 학비를 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체계 밖에 버려져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주류는 샌더스를 과격한 사회주의자라고 하지만 미국과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은 샌더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것은 없고 미국 예외주의도 종말을 고했다면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나타난 샌더스 현상은 일회성이나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이종호 과학칼럼

한국과학기술인협회장

콘크리트는 철, 유리와 함께 현대 건축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소재이다. 값싸고 튼튼하며 내구성이 좋은 콘크리트 덕분에 고층 아파트부터 기다란 다리까지 각종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콘크리트의 유효 성분은 석회석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이다.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화합물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약 90%를 차지하는 규산염도 들어간다. 점토도 필요한데, 사실 이런 성분을 잘 알아 물과 섞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1450도라는 높은 온도를 가열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온도에서 암석이 분해되면 칼슘 실리케이트(calcium silicate: 규산칼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물과 철근 등이 합치면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가 탄생한다.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건축 재료로서의 놀라운 특성에도 불구하고, 철근 등이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녹이 쓴다. 겨울과여

름에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물이 들어가면 상황을 보다 악화시킨다. 한마디로 균열이 생기지 않은 콘크리트를 만들면 되는데, 이것이 간단치 않은 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살아 숨 쉬는 건축물'인 바이오텍처(biotecture)가 이 분야의 해결사로 등장했다. 바이오텍처라는 용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생물을 건축물에 접목한 것을 가리킨다. 외벽에 덩굴을 자라게 하여 냉·난방 효과를 좋게 만든 건물이나 곰팡이·박테리아 또는 조류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콘크리트와 같은 딱딱한 소재와 생명체를 연결하여 콘크리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일명 '자가치유', 즉 '자가 보수 콘크리트'라고 부른다.

과학자들은 극한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체들을 발견했다. 수소이온농도(pH)가 9~11로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킬 정도로 염기성이 강한, 염기성 호수 바닥에 사는 파스테우리(pasteuri) 박테리아는 콘크리트의 성분이기도 한 방해석(方解石:CaCO3)을 분

해할 수 있다. 더욱이 바위에 갇히면 수십 년 동안 휴면기에 들어간다.

자가치유 콘크리트 안에는 이런 박테리아와 이들의 먹이가 되는 전분이 들어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여 기본 콘크리트 혼합물에 박테리아를 섞기만 하면 된다. 평상시에는 박테리아가 칼슘 실리케이트 수화물 섬유에 갇힌 채 휴면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약 구조에 균열이 생겨 물이 들어가면 박테리아가 휴면에서 깨어나 먹이를 찾기 시작한다. 박테리아는 곧 콘크리트에 첨가된 전분을 찾아내 그걸 먹으면서 성장하고 복제를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테리아는 방해석을 분비하고 탄산칼슘을 형성한다. 방해석은 콘크리트와 결합하여 균열을 메우는 광물 구조를 만들어 균열이 더 확대되지 않고 메워지는 것이다.

자가치유 페인트도 등장한다. 이 페인트는 열을 가하면 손상된 부분이 고쳐진다. 주차 중 실수로 생긴 자동차 표면의 상처를 굳이 정비소에 맡기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생긴 상처도 저절로 고쳐지는 소재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스크래치 정도는 스스로 회복되고 구겨져도 다시 퍼지며 평면뿐만 아니라 곡면 형태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마이클 템코비치 교수는 금속 내부에 나노 크기의 결정 입자들을 만들어 자가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미세한 균열이 커지기 전에 스스로 치유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이 말은 세월이 가도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 금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네델란드 델프트공과대학에서는 금속 내부에 나노 입자인 금 원자를 포함시켰는데, 균열이 생기면 유동성이 큰 금 원자가 이동해 균열을 메웠다. 또한 수분의 접근을 막아 각종 부식을 방지하는 데도 다양한 나노 입자가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주변 환경이나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살아 숨쉬는 콘크리트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지프 프리스틀리 명언 "저 밝아오는 아침 어딘가에 기적이 숨어 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도, 또 한번의 출발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인가."

영국 신학자·철학자·화학자. 물의 조성을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산소를 발견했지만 정체를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소다수를 발명하고, 일산화이질소·암모니아·염화수소·이산화황·플루오르화규소 등을 발견하였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33~1804.

☆ 고사성어 / 구두선(口頭禪) 입으로만 도를 깨우치려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불교용어. 말은 그럴 듯하나 실제 행동이 뒤따라지 않는 모습을 일컫는다. 필사본으로만 유통되던 당(唐)에 비해 목판인쇄술로 불교 서적이 대량 판매된 송(宋)나라의 문자선(文字禪)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된 말이다. 입으로는 선(禪)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참선 공부를 하지 않음을 비판한 데서 생겼다.

☆ 시사상식 / 애그테크(Ag-Tech) 농산물 생산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간보다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식량 부족 현상의 대안으로 꼽힌다. 토양의 온도와 습도, 일조량 등을 농작물 재배에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우수한 품질의 생산물을 수확하는 시기를 예측하는 등 모든 과정에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 신조어 / 우유남 '우유향 유전자를 가진 남자'의 줄임말.

☆ 유머 / 어떤 모범생 아들이 성적표를 내놓지 않자 엄마가 "너 왜 성적표 안 보여주니?"라고 물었다. 아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느라 그래요"라고 했다. 엄마가 "무슨 소리야? 내 뉘!"라고 다그치자 아들이 "안 된다"며 당당하게 덧붙인 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부모님께 걱정 끼쳐 드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권태성 산업부/tskwon@

코로나 대책, 방역·민생 두 토끼는

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곳도 나온다. 자동차는 1~2월 내수누적 판매가 11년 만에 최저치에 머물렀다.

정부의 즉집계 같은 경제 대책과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단순히 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세금을

유예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대적인 세금감면과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 수출 활로 모색 등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위축된 가계소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묘책도 필요하다. 무턱대고 전 국민에

게 100만 원씩 나눠 주자는 식의 접근보다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작정 뿌려대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접근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에도 이와 비슷한 정책이 나왔지만, 제한적인 외부활동 탓에 상품권 회수율이 예년에 미치지 못했다. 상품권 사용처를 온라인 몰 등으로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이 경제이고, 방역 이후에는 민생이 곧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섬세하고 밀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계가 무너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한국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사람 간 이동이 줄었다. 이에 따라 가계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지인은 주말 평균 150만~200만 원에 달하던 매출이 4분의 1로 막 났다고 한숨을 쉬었다.

산업계 파급은 더 크다. 항공업계는 승객수 감소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옆친데 댕친 격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하늘길은 더 얼어붙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후 즉각 타격을 받았다. 줄줄이 여행상품 예약이 취소됐고,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현금급

이슈&인물

코로나에 다시 떠오른 '개성공단'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개성공단 재가동해 마스크 생산을”

“비상 상황에선 현실적인 잣대가 아닌 '비상한 대안'으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촌 위기 속에서 개성공단의 긴급 마스크 생산을 불가능하다고 할 때가 아니라 현실 가능하게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방역물자 생산 제안”...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 김서진 상무는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대안’을 타개책으로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공론화를 위해 칼럼을 쓰고, 통일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긴급 제안서를 돌리면서 설득에도 나섰다. 6일 청와대 게시판엔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생산하자는 청원도 이어졌다. 12일 기준 참여 인원수는 1만 명을 넘기고 있다.

김 상무는 국내를 넘어선 전 세계적 마스크 대란에 주목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마스크 수요를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통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근본적인 마스크 수급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현재 마스크 최대 생산량은 1000만 장 생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략 800만 장 정도가 국내 생산량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진 등 방역 전선에서 발생한 수요 등을 제외하면 국민 1인당 마스크 1장으로 일주일을 착용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마스크 대란’이라고 표현했다.

김 상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마스크와 방역을 위한 보호복 등 방역 물품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지역 감염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마스크 제조업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이 방역물품 대란으로 이어져 지구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국회도 개성공단 방역물품 생산에 목소리를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마스크 대란을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해결하자며 정부에 적극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 설비를 맞춰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설비를 활용해 생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인도주의적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열고 남북관계를 적극 풀어나가자”고 밝혔다.

◇“위생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 생산해 야”... 개성공단 생산능력 충분 = 김서진 상무는 개성공단의 마스크 생산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대규모 생산시설과 숙련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방진 마스크 제조사 1곳을 포함해 이중 면 마스크 제조사와 위생 방호복 제조사는 각각 70여 곳이 있다.

김 상무는 “봉제업종이 사양산업에 접어들면서 국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장이 부족하지만, 개성공단은 생산 여건이 준비됐다”며 “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숙련공이 최소 3만 명이 넘고, 당장이라도 가동 가능한 50여 개 공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방역용·방호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비상 상황에선 비상한 대안으로 타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마스크 대란 대안 ‘개성공단’ 방진 마스크 제조 1개사 포함 관련 방호복 등 70여곳 달해

일회용 마스크 수급은 어려워 필터 교체 이중 면 마스크 대안 방역물자 수급에 큰 힘 될 것

정부 비상상황 인식하는지 의문 대북 제재 현실만 핑계 대면 오히려 국제사회 지지 못 얻어

복을 조달하면 보름 정도 걸리지만, 오늘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면 내일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회용 위생 마스크로 현재 수급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보건당국은 KF94 이상 마스크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개별공간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혼란을 키웠다.

이에 김 상무는 위생용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이중 면 마스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면 마스크 내 위생 필터만 교체해 사용한다면 기본적인 마스크 수급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처음 보건당국이 권고한 KF94 마스크 기준은 예방 차원에서 의미 있지만, 정부가 면 마스크 등 입장을 선화하면서 과도한 수준임을 인정했다”며 “면 마스크에 위생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한다면 마스크 대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방역 물자 수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주관으로 의료전문가와 마스크 제조사, 원단 및 위생필터 공급 업체 등 관계자들이 협의해 안전 생산 기준을 설정하는 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비상 상황에 맞는 관점에서 고민해야” =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실적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 의에서 “마스크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이 열렸으면 하지만 마스크 문제는 공장 문

제가 아니라 필터 공급이 부족해 증산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통일부 역시 재가동을 원하지만, 원자재 반입, 북한의 반응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정말로 ‘비상’으로 인식하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시 상황에선 주먹밥이라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비상 상황에 맞는 관점으로 대안이 가능한지 따져야 통상적인 관점으로 대안을 마련하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은 원칙적으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수적인 금융, 물품, 서비스 제공 문제가 제재와 연관될 수 있기에 일각에선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 상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하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며 “전 세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유엔(UN)이 방역용품 생산에 한해서 개성공단 가동을 막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터 및 원자재 반입 문제 등 실무적 문제는 외교를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북한에 코로나 19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대북 경제제재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필터 공급 부족 역시 KF94 기준을 유지할 필요 없이 낮추면 해결될 수 있다”며 비상 상황에서 돋보이는 외교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북한도 국경을 봉쇄하고 개혁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 역시 개성공단 방역물품 생산에 협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코로나19 사태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데도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만 핑계로 댄다면 결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에서 방역 물품을 대량생산하면 평화공단을 넘어 지구촌의 보건 생산 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는 기회와 공존한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경제도 회복하는 시작점이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사설

WHO 팬데믹 선언, 경제 비상수단 총동원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세계 전역에 검압을 수 없이 번지자, 그동안 낙장 대응으로 비판받아온 WHO가 결국 팬데믹을 선언한 것이다. 전염병 최고 경보단계다. WHO의 과거 팬데믹 선포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때 등 두 차례다.

작년 말 중국 우한의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이후 2개월여 만에 확진자 수는 세계 110여 개 국가에서 1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퍼졌다. 사망자도 4000명을 넘는다. WTO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환자와 사망자, 피해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얼어붙은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가속화할 계 분명하다. 각국의 인구가동 제한 등으로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생산과 소비 감소가 우려된다. 세계 금융시장도 다시 요동쳤다.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11일(현지시간) 5.86% 폭락했다. 다우지수는 52주 최고가 대비 20.3% 떨어져 2009년 이후 처음 약세장(bear market)에 진입했다. 일본 닛케이 225 평균주가는 12일 4.4% 가라앉았다. 그런데도 아직 코로나19의 피해를 가능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는 더 암담하다. 12일 주식시장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3.87%(73.94포인트) 추락한 1834.33으로 마감했다. 9일 4.19%

나 폭락해 지수 2000선이 무너진 지사를 만이다. 장중 5% 이상 떨어져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사이드카 발동은 2011년 10월 이후 8년 5개월 만이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공급망 붕괴, 교역위축 등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데 대한 비판 때문이다. 지금 세계 123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대외교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 긴급건의’를 내놓았다.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로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을 40조 원으로 확대할 것과,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의 해소, 기준금리 인하,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 부활, 내수부양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요구한 내용이다.

전방위적인 산업 피해가 가시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절박한 처지에 몰린 경제계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과거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신종플루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 등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비상한 국면이다. 조금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빈틈없는 방역체계의 고삐를 더 죄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가라앉은 경제의 숨통을 틔울 비상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영화로 보는 세상

정치권력에 들이댄 기자정신 ‘신문기자’

이제 신문기자 하면 웬지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진다. 일단 사람들은 신문을 보지 않는다. 유튜브와 SNS 그리고 수많은 플랫폼에서 쏟아져 나오는 재미있는 영화, 영상물 보기에 시간엔 모자라다. 그래서 어느샌가 전철이나 버스에서 신문을 읽는 사람(나 같은)을 발견하긴 매우 어렵다. 그런데 영화 제목이 ‘신문기자’란다. 한국 영화는 아니다. 그래도 아직 언론 시장에서 신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본 시장이기에 이런 제목도 가능하리라. 영화 ‘신문기자’는 작년 10월에 개봉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더니 요즘 재개봉을 앞두고 있다. 봉준호의 아카데미 석권이 워낙 큰 뉴스이기도 했고, 지금 한국과 일본은 초유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중이라 낭보 하나가 묻히긴 했지만 그래도 뿌듯한 소식이다.

6일 제43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신문기자’는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3개 부문을 휩쓸었는데, 여기서 한국 최초이자 일본 최연소 최우수여우주연상을 거머쥔 배우가 바로 한국 여배우 심은경이었다. ‘아니 왜 심은경이 거기서 나와?’ 하겠지만 그녀는 몇몇이 오디션을

보고 주연 자리를 꿰찼고 여배우 최고의 영예인 주연상 수상도 하였다.

영화의 배경은 일본이지만 우리네 정치 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에 진실을 감추려는 국가 권력의 음모는 기사감을 느낀다. 신문기자 역할을 맡은 심은경이 진실을 집요하게 찾아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몇 년 전 일본을 뒤흔든 사학비리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었다 하는데, 아베를 비판하는 반정부 내용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성공을 거두었다. 변영주 감독은 완성도 높은 정치스릴러에 배우 심은경의 탁월한 연기로 깊이감을 더했다며, 부패한 권력과 그에 굴복한 언론이 세

상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극찬한다.

요즘 기자들, 특히 신문기자들 괴롭다. 매일 채워야 하는 기사, 광고까지 고민해야 하는 여건, 기레기라고 조롱하는 대중들... 그 틈에서 언론의 갑낱을 버리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4부의 권력으로 우뚝 서주길 바라는 또 다른 기대를 갖고 있다. 영화를 보면서 내내 드는 생각, 분발하오, 한국의 신문기자들이여!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친환경 자동차 소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자연을 생각할 순 없을까?

SK가 친환경 소재로 혁신합니다

더 가볍고 오래가는 초경량 소재로
자동차의 무게는 덜어주고,
배출가스를 줄여줍니다

우리의 기술이 자연이 바라던 혁신이 되도록

SK 이노베이션